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새해 금융 목표,
뱅크오브호프와 설계하세요!
FDIC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민족·통일’ 버린 김정은... 그가 사라져야 통일 온다

SPECIAL STORY / 고위급 탈북자 리정호 씨 인터뷰

“강력한 무력 대응만이 북한과 대화의 길 열어”
“북한 핵무기, 김정은 충분히 사용 가능해”

“한반도 통일은 간단히 이뤄질 수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씨 체제가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유일한 관건이다.”

탈북 고위관료 리정호(사진) 씨가 본보를 방문했다. 평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워싱턴 한인들에게 “북한의 핵 포기는 가능성 없고, 체제 종말 없이는 통일도 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난해 말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우숙) 특별 강연(본보 12월20일자 A3면 보도)을 통해 한인사회에 큰 인상을 안겼던 그는. 특히 “북한의 경제 개방을 도우면서 개방을 유도해 장기적인 통일의 길로 진입할 수 있다”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 열개까지 “개방은 김정은 체제 불안 요소이므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대남 무력 통일 이외의 한반도 통일방식은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미래가 결코 아니다”라던 리 씨의 진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리 씨의 강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던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보도 됐다. 연이은 미사

일 시험 발사로 북한이 러시아가 답례로 제공하는 군사기술을 거침없이 흡수해 인공위성부터 각종 최신 무기 제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통일’과 ‘민족’의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폐기조차 하기 까지 이른다. 리정호 씨의 분석이 ‘예언’처럼 맞아 떨어졌던 순간이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인터뷰 내내 쏟아졌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하면 그냥 구경하며 분석하는 한미일의 대응은 아무런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리정호 씨는 말했다. 그는 “한번이라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쏘아 떨어 뜨리기 위한 무력 대응을 펼친다면, 김정은의 간담이 서늘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가 인터뷰 내내 펼친 대북전략의 핵심 명제는 ‘눈에는 눈(eye for an eye)’이다. “통일과 민족을 버린 북한 정권에게 끌려 다닐 이유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밀착한 김정은은 이제 거침 없다. 남한은 물론 미국도 무섭지 않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기해 해군 함대를 시찰,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해 8월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것”이라고 했다. 리 씨는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확실하고 단호한 한미일의 전략이 펼쳐져야, 비로소 북한이 외교적 대화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벌이고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리정호 씨는 직설적으로 답했다. “북한의 핵은 자기방어를 위한 상징적 수단일 뿐이다. 무력통일 완수를 위한 절대 병기다. 북한은 서울과 부산에 핵 방방 썩만 떨어뜨리면 확전을 원치 않는 남한 국민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리정호 씨는 “핵버튼 누를 징조가 보이는 순간 김정은

의 궁궐에 미사일을 퍼붓는다는 남한과 미국의 대응책은 한없이 순진하기만 하다”면서 “김정은의 핵병커는 평양이 아닌 백두산 중턱 깊숙한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국경에 이어지는 그 지점에 미국과 한국군이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리정호 씨는 현재 워싱턴 이그제미너 등 다양한 미국 매체에 북한 문제를 정리해 기고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북문제에 관해 조언하고 있다.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중국 다롄주제 대흥총회사 지사장 등을 역임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료답게 현재까지도 다양한 경로로 북한 내부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다. 리 씨는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중 간간히 리정호 씨는 “한에서 김정은 체제를 전복할 혁명적인 봉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 않겠나”고 농담처럼 이야기 했다.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던 수십년 전 누군가의 말이 해안이며 정답이었던 것일까? “통일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요즘이다. 박세용 기자

미국인 53% “국경 담장 쌓자”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가 11월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불법 이민자 출신의 중남미 청년이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자

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몬마우스대학이 26일 전국의 성인 90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1%)은 불법 이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

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 결과(46%)보다 15%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하다’(23%)는 응답까지 합치면 무려 84%가 불법 이민에 대해 우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2명 중 1명 꼴(53%)로 국경장벽 설치를 지지했다. 이는 2015년도 조사 결과(48%)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8%는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간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불법 이민자 3명 중 1명은 범죄를 쉽게 저지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퍼 화요일(3월 5일) 예비선거를 1주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가 이민 문제가 경제나 인플레이션, 정부, 기타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중요한 문제로

고 답했다. 지난 1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만 이민 이슈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갤럽은 대선 기간 동안 불법 이민 이슈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는 건 9·11 테러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라며 올 대선 결과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이슈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장연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면지못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한·미 내달 '자유의 방패' 연습, 하반기엔 북핵 사용 가정 훈련

4~14일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 북 실전 위협 대비 훈련 양 늘려 유엔사 소속 12개국도 병력 파견 한·미 국방 통화 "확장역제 강화"

한·미가 올해 전반기 실기동 야외훈련 (FTX) 횟수를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야전 훈련을 정상화한 데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훈련 폭을 더욱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양국 군은 또 유엔사령부 회원국과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연합훈련에 참여시키는 등 대북 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의지를 더욱 부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8일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4~14일에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12부로 각각 나뉜 '방어'와 '반격' 시나리오를 통합해 11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된다. 실전 상황에 맞게 작전의 연속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FTX 횟수 확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휘소 연습(CPX)과 별도로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공대지폭격훈련, 쌍매훈련(대대급 연합공중훈련) 등 총 48차례 크고 작은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3~4월 실시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횟수(23회)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한·미 실기동 야외 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면서 '훈련 정상화' 가치를 내걸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실시되던 한·미 FTX를 2022년 '연대급'으로 확장한 뒤 지난해 '사단급' 규모로 격상하면서다.

올해 FTX 횟수를 늘리는 건 이런 정상화 의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 연합연습에선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 훈련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략폭격기, 핵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다음 달 4~14일 열리는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추진 잠수함 등의 미 전략자산이 이번 연습 기간 한반도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전반기 연습 당시엔 니미츠함 함모전단과 B-1B 폭격기가 왔었다. 군 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에 유엔사 소속 12개국(호주·벨기에·캐나

다·콜롬비아·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이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에 참여했던 10개국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유엔사 회원국은 그간 꾸준히 한·미

연합연습에 참여해 왔지만, 군 당국이 연습 실시 전 해당 사실을 발표문으로 알린 건 당사가 처음이었다. 군 소식통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유엔사의 역할을 현 정부가 복원하려는 기조로 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합연습에도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가 참여한다. 훈련 내용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스위스·스웨덴으로 이뤄진 중감위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해 온 상설 군사기구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으레 "전쟁 책동"이라며 맹비난해 왔는데, 중감위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방어적 성격의 훈련에 대한 명분을 쌓는 데 유리하다는 게 군 인팍의 판단이다.

이번 연합연습 계획 발표에 앞서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8일 오전 전화 통화를 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확장역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평·이유정 기자

미 육군, 주한미군 숫자만큼 정원 감축... "한반도 유사시 악재로"

미, 5년내 육군 2.4만명 감축계획 유사시 파병 병력 더 줄어들수도

미국 육군이 5년 이내에 병력 정원 2만 4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 구조 개편 계획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주한미군 병력(최대 2만8500명)과 맞먹는 규모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

원에 차질이 있을지 우려된다.

미 육군이 이날 발표한 '육군 전력 구조 변화' 백서에 따르면 미군은 2029회계연도(2028년 10월~2029년 9월)까지 육군 정원을 현재의 49만4000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미 육군 현역병이 44만5000명이며, 실제 병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병력 구조(원제)를 조정하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당장 현역병을 줄이지 않는 대신 미 본토의 예비군을 줄이기 위한 예비 조치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군 입장에서 모병의 어려움과 유지 비용 등 예산 측면을 따졌을 때 예비 전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

서 증파될 병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기존에 미군이 계획한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에 따르면 한반도에 파병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69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예비군이어서, 예비군 감축이 증파 병력 축소에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양육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도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까지 줄이면 TPFDD 상 증원

계획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편제라 해도 지상군 병력이 감축되는 건 한국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대외 개입을 위한 해외 주둔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거칠고 즉각적이며 즉흥적인 방식으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진 기자

MBC 뉴스에 등장한 '파란색 1'...국힘 "노골적 선거운동" 제소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국민의힘이 뉴스에서 날씨를 전하는 도중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28일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 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정당기호 '1'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각한 것은 노골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다.

파란색 숫자 '1'은 지난 27일 MBC 저녁 뉴스 말미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 캐스터는 숫자를 가리키거나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만들어 보이면서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

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히 보인다"며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유독 MBC에서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행사

영상은 군집한 인파가 등장하지 않고 클로즈업된 사진만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파가 몰린 현장을 마치 일부러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처럼 보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 MBC에 대해 지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며 "왜곡되고 공정하지 못한 보도의 끝은 정해져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혜 기자

워싱턴 날씨 (°F)

1일(금) 55~43	4일(월) 68~47
2일(토) 57~50	5일(화) 69~50
3일(일) 66~49	6일(수) 62~53

2월 29일(목) 49~3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총체적 접근으로 비핵화 환경조성”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 차원에서 억제, 단념, 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복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7일 워싱턴DC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마리아노 플로렌티노 구엘라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대화의 문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조 장관은 “지역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및 세부 이행계획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 지역을 구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포함하여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외교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외교를 추진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면서 주요 7개국(G7) 플러스(+) 외교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오후 국무부에서 진행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 한미 정상회담의 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 ▲ 비전·가치·이익이 일치하는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 ▲ 상호 번영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미 동맹과 관련, “워싱턴 조약에서는 한국을 미중

참석 전문가들 “제한적 사용 등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대비 필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마리아노 플로렌티노 구엘라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계의 하위 맥락이 아닌 그 자체로서 글로벌 행위자 및 역내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제도화가 진척돼 향후 관련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다양한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제한적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한미간 대응 공조를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전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구글, 화이자, 씨티은행, 메트라이프 등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면담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적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VA텍 연구진 상업화 추진

버지니아텍 연구진들이 공기 샘플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지하는 테스트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린제이 마르 교수는 “직장이나 학교, 극장, 식당 등 실내에 들어선 후에 공기 샘플을 포집하고 15분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 개발이 목적”이라며 “만약에 공기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지됐다는 정보를 입수한다면 계속 머무르지 아니면 자리를 이탈할 지 등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전했다.

공기 샘플링 방식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매우 시끄러운 펌프를 통해 마이

크로웨이브 사이즈의 용기에 공기를 포집해야 하고 이 샘플을 실험실을 옮겨간 후 바이러스 감사를 해야 한다.

바이러스 포함 여부를 가리는데 1-2일이 족히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버지니아텍 연구진은 샘플 크기를 축소하고 검사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원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연구진은 일반 코로나바이러스 항원 자가검진키트 사이즈에 스트립 칼라 변화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지니아텍 연구진은 2-3년 안에 경제성 높은 테스트키트를 개발하고 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한인 신학생 성폭행 혐의 체포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재영씨 납치·성적 구타로 3급 기소



사실을 파악한 학교 캠퍼스 경찰은 SLED에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 25일 유씨는 기소됐다. 현재 유씨는 로렌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유씨는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 학생이다. 피해자의 학생 여부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인 신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역매체 ‘WYFF뉴스4’에 따르면 사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에 있는 프레즈비테리안 칼리지(Presbyterian College·이하 PC)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유재영(23·사진)씨는 지난 25일 납치 및 범죄적 성행위 3급 혐의로 기소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SLED)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유씨는 학교 캠퍼스 레지던스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적 구타(sexual battery)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은 지난 26일 성명문을 내고 “현재 성폭행 가해자는 보석금이 불허된 채 수감 중이다”라며 “우리는 커뮤니티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FAFSA 정보 제공 지연 교육부, 해결 조치 발표

‘연방 무료 학자 금보조 신청서(FAFSA)’ 정보 제공 지연 사태로 최근 뉴욕주립대(SUNY) 등 일부 대학이 입학 결정 마감일을 연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새로운 해결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계획의 목표는 대학이 FAFSA 정보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들이 받을 재정 지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된 방식을 통해 대학들은 오는 3월 교육부로부터 FAFSA 데이터를 받은 후 비교적 빠른



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종 재정 지원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서비스업체와 협력해 이 업데이트를 며칠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로, 다음 주부터 교육부는

FAFSA 관련 자원이 부족한 대학에 연방 학자금 지원(FSA)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한다. 인력 지원 대학은 펠 그랜트 수혜 학생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교육부는 “이미 100개 넘는 대학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3월 본격적으로 전국 대학에 전달될 ‘학생 정보 기록(ISIR·Institutional Student Information Record)’의 테스트 버전을 이번 주에 대학들에 전송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장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VA/MD/DC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



“선거캠프 지원금 100만달러 넘어”

존이 LA 12지구 시의원
공약 공감한 단체·유권자 후원
“정치색보다 주민소통이 중요”



미국 두 번째 대도시 LA서 유일한 무소속인 존 이(사진) 12지구 시의원. 그는 세 번째 선거를 앞두고 ‘브랜드가 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9년과 2020년의 선거에서는 시의원 사무실에서 오래 일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지만 이젠 무엇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 시의원인지 지역구 주민들이 잘 알게 됐다. 선거 중 7개 지역구에서 가장 치열한 결전을 벌이고 있는 그에게 캠페인 현황과 시정을 물었다.

-예산만 있는 선거라 치열해졌다. 현재 판세는.

“잘되고 있다. 4년 전과 달리 주민들은 내가 어떤 당 소속인지보다는 내가 시의회에서 투표해오고 상정한 발의안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주민들을 보살피고 지키려는 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지키려는 봉사자로 볼 것이다.”

-외부 단체와 조직들이 이 후보에게 무려 100만 달러를 넘게 썼다. 왜인가.

“그동안 시의회에서 내가 내놓은 정책과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라고 믿는다. 경찰력 강화와 주민 안전도모라는 공약들에 격정하는 그룹과 주민들이 응원하는 것이다. 모두 경찰, 소방, 기업, 노조의 지지다. 뿌듯하다.”

-한인 유권자들에게 메시지가 있다면.

“나는 스몰비즈니스를 했던 한인 이민 1세의 아들이다. 누구보다 한인들의 생각과 걱정을 이해한다. 시의회에서 한인들을 대표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최인성 기자

YMCA 개관, 박수만 치기 어렵다

27일 버몬트길 YMCA 개관
8년전 한인들이 추진한 센터



27일 새로 문을 연 코리아타운 YMCA 센터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축하 이면엔 작잡함이 배어있었다. 27일 코리아타운 YMCA 센터(433 S. Vermont Ave) 개관식에 참석한 스티브 강 KYCC 디렉터는 진심 어리게 손뼉을 치면서도 연신 “아쉽다”고 했다.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다. 세련되고 깨끗한 외관이다. 강 디렉터가 쓸쓸할 수밖에 없는 건 8년 전 일 때문이다. 이날 버몬트 길에 개관한 YMCA 센터 건물은 원래 ‘LA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가 될 뻔했다.

이면에는 그 당시 구심점 없고 동력이 부족한 한인 사회의 단면이 담겨있다. 지난 2016년 8월 9일이었다. LA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한인 사회가 주축이 된 커뮤니티 센터(1만2500스퀘어 피트) 건립안을 정식 채택했다. 당시 카운티 정부가 추진하던 버몬트 선상 4-6가 재개발 프로젝트(버몬트코리도)에 한인타운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정식으로 포함된 것이다.

역사적인 날이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달라는 한인사회의 끈질긴 요청이 결국 카운티 정부를 움직인 셈이다. 당시 LA한인타운을 관할했던 마크 리들리-토마스 수퍼바이저도 한인 사회를 위한 센터 건립을 지지했다.

당시 한인타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에는 ‘코리아타운아트&레크리에이션커뮤니티센터(이하 K-ARC)’라는 단체가 중심에 있었다. KYCC를 비롯한 한미연합회, 한인가정상담소, LA한인회, LA상공회의소, 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PAVA), 페이스(FACE) 등 10개 한인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다 갖추고 있었다. 부지도, 건립 비용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심지어 운영자금도 있었다. 월서와 버몬트에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짓던 개발사(JH스나이다)로부터 2011년에 기부받은 100만 달러였다. 힘을 모아 짓기만 하면 됐다.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사실상 무산된 건 ‘우리끼리’ 대표 단체를 정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의명을 요구한 한인 단체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K-ARC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할 ‘대표 단체’를 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K-ARC 내부적으로 대표 단체 선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본래 한인 사회에서는 커뮤니티 센터를 스포츠 등을 비롯한 예술,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또, 한인타운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했다.

반면, YMCA는 스포츠, 피트니스 등의 서비스 위주로 운영된다. 회원제여서 저렴하지만 회비를 내야한다.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YMCA가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한인 사회의 아이 디어는 다시 숙원으로 남았다.

장영 기자

펠로시, 엔비디아 투자 140만불 벌었다

낸시 펠로시(사진) 전 미국 하원의장이 엔비디아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27일 투자 전문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펠로시는 지난해 11월 말 남편과 함께 엔비디아 콜 옵션 50건을 계약당 380달러에 매수했다. 2022년 11월 15년 만에 하원의장 직을 사임한 지 1년여 만에 한 거래다. 1건 당 100주에 해당하는 이 옵션의 현재 가치는 계약당 660달러로 약 1.7배 뛰었다.

펠로시 부부는 약 140만 달러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미국 주식시장 나스



닥(NASDAQ) 홈페이지도 이달 초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을 주력으로 하는 엔비디아는 최근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 투자 감시자인 크리스 조셉스는 인베스팅닷컴에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인의 개별 주식 거래는 해악이 크다”며 “기업들은 직원들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데, (정치인처럼) 막강한 사람들은 아직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다니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수진 기자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거부율 증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정책연구소(NFAP)에서 27일 발표한 H-1B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에 발급된 H-1B 비자 거부율은 3.5%로 전년도의 2.2%에서 1.3%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 시대의 경우 평균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H-1B 비자 거부율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최근 들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지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 발급이 거부된 고용주가 대부분 취업비자 신청서를 10개 미만 제출한 기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구글, 아마존 등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 인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외국인 최대 고용주 톱 25위에 오른 대기업의 경우 비자 거부율이 평균 1~2%였으며, 100개 이상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비자발급 거부율이 1.5%에 그쳤지만, 외국인 인력을 1명 또는 2명을 채용한 기업체의 비자발급 거부율은 각각 4.7%, 4.1%로 3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H-1B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4052건을 접수했다.

장연화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수요감소’ 렌트비 인상 멈췄다

1월 들어 전년 대비 5% 감소 ‘임대료 인상 계획’도 5% ↓

집주인들이 렌트 수요가 감소하자 렌트비 인상을 중단하면서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다.

리얼터닷컴의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렌트비가 하락 추세다.

지난달 50대 대도시의 스튜디오, 1베드룸, 2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지난해보다 5달러 내린 171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의 1771달러보다 59달러 줄어든 금액이다. 4년 전보다 주택 가격이 18.3%나 상승했는데 내년에 렌트비를 인상하겠다는 집주인들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집주인의 60%가 향후 12개월 내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2023년 1분기 비해 5% 하락한 수치다.



고공행진하던 렌트비가 2022년 8월 기점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렌트비 인상이 일시적인 중단 현상을 보이는 것은 신축 주택 증가 영향이다. 아이프로퍼티테크에 따르면 신규주택 착공 수는 140만 건으로 건물주가 임대를 내놓는 경우가 단독주택의 66.8%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모기지 이자가 하락세를 보이며 세입자들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렌트 수요를 줄이고 있다.

렌트비는 팬데믹 동안 연방정부 경기부양금 혜택 지원이 시작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팬데믹이 임대시장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재택근무 증가다. 출퇴근하지 않고 원격근무를 하는 많은 젊은층들은 도시 대신 렌트비가 저렴한 교외 지역 임대 매물을 선호했다.

엔데믹으로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복귀가 시작되면서 세입자들이 다시 도시로 유입되고 렌트비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렌트 수요는 감소하고 수많은 세입자가 오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임대시장은 당분간 임대료 재조정 기간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얼터닷컴은 올해 중간 렌트비가 0.2%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영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하계대학 장학금 지원자 모집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워싱턴 DC지회(회장 이지은)가 이화여자대학교 하계대학 장학금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화 하계대학은 한국의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전공 관련 수업을 비롯한 한국어, 한국/아시아에 대한 폭넓은 수업 및 문화 체험을 포함해 다채로운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남녀공학 계절교육 프로그램이다.

이화여대와 학점 교환 협정을 맺은 대학의 학생들은 이화 하계대학에서 들은 수업을 자신의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으며 미리 지원할 경우, 인턴십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장학금 프로그램은 남녀 불문 2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워싱턴DC 지역(DC, MD, VA)에 거주 중인 미국 대학 재학생 혹은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등록금과 학비(2과목), 기숙사비 등이 제공된다.

지원서 마감은 내달 30일(토) 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지원서 1부(ewhadcchapter.org 다운받아 작성), 에세이, 이력서(Resume), 성적 증명서, 여권 사본, 교수/교사 추천서 1부 등이다.

문의: admin@ewhadcchapter.org

김윤미 기자



제 81차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

이병완 목사 ‘사모하는 영혼에게’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회장 오쾌한 목사)가 지난 27일 애난데일 소재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2월 기도회 예배를 개최했다.

오쾌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이은숙 목사가 반주를 맡았으며, 김양식 목사가 대표기도를, 황은숙 전도사가 특송을 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시편107:1-9을 인용해 이병완 목사(세계로 장로교회 담임)가 ‘사모하는 영혼에게’를 주제로 설교했다.

윤종화 목사의 봉헌송 이후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정세권 장로가 ‘대한민국

을 위하여, 배석휘 목사가 ‘미국을 위하여’, 이주성 목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를 제목으로 기도한 후 참석자 모두가 합심기도를 이어갔다. 오쾌한 회장은



참석자들을 향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철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애난데일 소재 ‘중화원’에서 정운의 목사의 기도 후 오찬을 함께하며 교제를 이어갔다. 김윤미 기자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 백악관, 9일부터 추첨 응모

백악관 부활절 달걀 굴리기 대회(Easter Egg Roll) 참가를 위한 복권 추첨 이벤트가 시작됐다.

백악관은 온라인 웹 페이지(recreation.gov)를 통해 오는 3월4일 정오까지 무료로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3월11일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통보를 받게 된다.

복권 추첨 행사는 가구당 한명씩만

응모할 수 있다. 행사는 4월1일(월)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다. 당첨자(성인 1명 혹은 성인 2명)는 1명 이상의 1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티켓은 무료이지만 가구당 최대 6장

쿠쿠, 고급형 안마의자 선보여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맞춤형 기능을 탑재한 최고급 안마의자 리네이저 4D(사진)를 출시했다.

리네이저 4D 안마의자는 어깨 압력 감지 센서와 IR 센서가 내장돼 있어 사용자의 키와 체형을 스캔해내는 것은 물론, 컨디션까지 고려한 맞춤형 안마 의자로 제작되었다. 더불어 목부터 허리의 굴곡진 부분까지 담당하는 S프레임과 허리부터 하체까지 감싸주는 L프레임이 결합된 고급형 SL프레임을 장착했다. 기존 출시되던 고급형 모델과 비교해 더욱 강력한 에어펌프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22개의 맞춤형 자동,



수동 마사지 프로그램과 4개의 선택부위 집중모드로 더욱 디테일한 맞춤형 안마의자로 탈바꿈했다.

제품에 장착된 여러 센서와 스위치는 각도 조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사고를 방지해 준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무중력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리클라이닝 기능을 사용해 안락의자 용도로도 효과적이다. 쿠쿠의 신제품 리네이저 안마의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쿠쿠렌탈(cuckoorental.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3/11-3/15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트럼프와 '다른길' 매키넬 공화 원내대표 11월 사임

상원 역사상 최장수 대표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알아야" 트럼프 '대선사기' 주장 갈등 고령 논란 바이든엔 압박될 수도



미치 매키넬(왼쪽) 원내대표가 28일 상원 회의장에서 원내대표 사임 계획을 밝힌 뒤 나오고 있다.

상원의 최장수 원내대표이자 같은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로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미치 매키넬 상원 의원이 대선을 전후해 상원 공화당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다.

매키넬 원내대표가 28일 상원에서 오는 11월에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올해 82세다.

매키넬 원내대표는 "인생에서 그 가치를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재능 중 하나는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

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라며 "이번이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로서 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키넬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전통적인 보수주의를 따

르고 국제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금의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영합주의와 고립주의 노선으로 흐르고 있다. 이 때문에 매키넬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

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매키넬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력했지만 대선 직후인 2020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시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았고 둘은 그때부터 갈라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과 무역협정의 가치를 경시하고, 이민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등 공화당의 극우 성향을 강화했는데 이는 매키넬 원내대표가 지향하는 공화당의 가치와 달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매키넬 원내대표는 2027년 1월에 끝

나는 상원의원 임기는 마칠 계획이다. 그의 보좌진은 원내대표 사임 결정이 건강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매키넬 원내대표는 작년 3월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했으며, 작년 7월과 8월에는 두차례나 기자회견 중 말을 하다가 돌연 멈추고 수십초간 멍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여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

매키넬 원내대표는 이날 사임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아내의 막내 여동생이 사망한 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매키넬 원내대표의 사임 계획 발표는 올해 81세로 고령 논란 속에 대통령 재선 도전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시다, 4월 도요타공장지역 방문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들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도요타자동차가 전기차 등에 탑재하는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아 일본이 고용 창출과 투자 등에서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11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에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를 문제 삼았다"며 "이번 방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선수를 치는 형태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노력을 보이려는 듯하다"고 전했다.

미국을 공식 방문한 일본 총리가 수도 워싱턴DC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까지 들른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국빈 방문 당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찾았다. 기시다 총리의 방미 기간은 4월 9~14일로 조율되고 있다. 그는 4월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고, 다음날인 11일 상·하원 합동회의의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도쿄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4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트럼프, 미시간 경선 나란히 압승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민주당 및 공화당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예상대로 각각 크게 승리했다.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화요일(3월 5일)을 앞두고 진행된 양당의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번이 없는 한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실질적 경쟁자가 없이 진행된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미국인의 민심 이반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 적지 않은 '반(反)트럼프 표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각각 확인하는 등 취약점도 노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10분(동부시간) 현재 12% 개표 상황에서 7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쟁자인 민주당 딘 필립스 하원의원과 메리앤 윌리엄스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2.7%, 2.6%에 그쳤다.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관심을 모았던 '지지 후보 없음'은 15.8%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으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른 미시간주는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지후보 없음' 투표 운동을 벌여왔고, 상당수 유권자가 이에 호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9% 개표 현재 65.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일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30.2%이며 '지지후보 없음'은 2.2%로 집계됐다. 아직 최종치는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가 지지율 격차는 당초 예상치보다는 적은 것이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의 여론조사 종합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 48.7%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AP 통신 등은 이날 오후 9시 미시간주 모든 지역에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화당의 경우 이날 프라이머리에 더해 다음 달 2일 미시간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도 개최한다. 전체 55명의 대의원이 가운데 프라이머리 결과에서 16명, 코커스 결과에서 39명을 각각 배분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시간주에 이어 다음 달 5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 개 주에서 프라이머리 및 코커스를 각각 진행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 사실상 각 당의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 북부 대형 산불 비상...주민 대피령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AP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산불이 난 곳은 텍사스주 팬헨들 지역으로,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60개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케빈 스파크스 텍사스주 상원의원

은 인구 약 2천명의 마을 캐나다언을 비롯한 여러 곳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애벗 주지사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1천40km²가량을 태워 하루 사이에 피해 면적이 2배로 늘었다. 이 산불로 현지 고속도로가 폐쇄됐다.

건조한 날씨 속에 시속 64km의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번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기상청은 강풍과 따뜻한 기온, 낮은 습도 등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라며 미 중부의 여러 주에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26일 발생한 텍사스주 산불 확산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chocpa@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FAMOUS fishcakes by SAMJIN

삼진어묵 특판전

MAR. 1st - MAR. 7th, 2024

삼진
어묵
SINCE 1953



SAMJIN
Swimming Crab
Fishcake Skewer Soup

삼진어묵
통꽃게 꼬치어묵탕 **\$9.99** ~~\$14.99~~
1.53 LB

SAMJIN
Specially Assorted
Fish Cake

삼진어묵 x H MART
모듬어묵

~~\$10.99~~
\$7.99 2.23 LB



SAMJIN
Shrimp Roll
Fishcake Skewers

삼진어묵 통통 야채
새우봉꼬치

~~\$8.99~~
\$5.99 1.21 LB



SAMJIN
Fishcake
Skewers

삼진어묵
간편 꼬치어묵

~~\$13.99~~
\$6.99 2.2 LB



SAMJIN
Fishcake Bar
6 Pack

삼진어묵
어부의 바
3종 2세트

\$8.99
\$5.99 16.9 OZ



SAMJIN
Crispy Chili Pepper
Fishcake
Croquettes

삼진어묵 바삭한
매초 어묵크로켓

\$8.99
\$4.99 12.7 OZ



SAMJIN
Crispy Shrimp
Fishcake
Croquettes

삼진어묵 바삭한
새우 어묵크로켓

\$8.99
\$4.99 12.7 OZ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애플카’ 개발 포기... “팀원 2000명 AI 부서 보낸다”

(자율주행 전기차)

10년 만에 손 떴고 생성AI 집중
기술 구현 못해 출시 늦어진 탓
‘삼성 등과 AI 경쟁’ 위기감도 작용
“자율주행 시장 더 냉각될 것” 분석

애플이 10년간 공들여 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에서 손을 뗐 전망이다. 막대한 투자에도 상용화 전망이 불투명한 자율주행차 대신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에 전력을 쏟기 위한 결단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내부 회의를 통해 애플카를 개발해 온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그룹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차량 디자이너 등 약 20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블룸버그는 “직원 중 상당수는 AI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며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성 AI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된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진행해 온 애플이 10년 만에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셈이다.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 같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이 뒤로 밀리고, 대세가 될 줄 알았던 전기차 시장도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 문제 등으로 예전의 활기를 잃었다. 그런 가운데 완전 자율주행 기술(레벨5)을 구현할 ‘잠룡’으로 여겨졌던 애플이 이를 접고 AI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반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탓이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애플카 출시



팀 쿡 애플 CEO

시점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2028년까지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당초 레벨5 기술을 적용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이동수단까지 구상했던 애플은 특정 지역과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로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레벨 2 플러스(+)'로 목표치를 낮췄다. 테슬라 등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내부에선 ‘테슬라 모방 제품’(Tesla me-too product)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개발이 지연되자 핵심 인력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더그 필드 부사장은 2021년, 디제이 노보트

니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최근 퇴사했다.

대세이자 미래 기술인 생성 AI 분야에서 애플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애플카 개발을 접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애플은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한 이후 구글·메타 등 주요 빅테크가 생성 AI 경쟁에 앞다퉀 뛰어드는 와중에도 조용한 행보를 유지했다. 올해 초에는 생성 AI 기술을 선도해 온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IT업계에선 최근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앞서 나가자 애플이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누라그 라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전기를 포기하고 생성 AI로 리소스(자원)를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장기적인 수익성 잠재력을 고려할 때 좋은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AI를 선택한 애플의 결정에 주식 시장도 일단은 환영 분위기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1% 가까이 상승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중단하면서, 자율주행차 시장 열기는 더 차갑게 식을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자 테슬라 등 기존 자동차 업체는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도 “이는 암울한 자동차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현지에선 지난해 8월 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회적 반감이 커진 상태. 불안정한 기술 수준 때문에 잇달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크루즈 택시는 지난해 10

월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6m가량 끌고 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 이후 크루즈 택시의 운행은 전면 중단됐다. 지난 11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반감을 가진 군중이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차량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익화에 난항을 겪던 구글 웨이모는 세 번의 인력 감축을 시행했다. GM 크루즈도 최근 전체 직원의 24%인 900여 명을 해고했다.

전문가는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 되려면 기술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중의 인식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돌발 행동 등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수많은 ‘에지 케이스’(edge case)를 학습해 대응해야 해서다. 기술 안전에 대한 불신 등 시민이 자율주행 기술에 느끼는 거부감이 커지면 서비스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국내 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관계자는 “코로나 언택트(비대면) 시기 동안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며 형성된 버블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오랜 시간 검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점진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기업들의 목적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책 『포스트 모빌리티』의 저자 차두원 박사는 “일부 사례만 보면 자율주행 시장 전체가 침체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에도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 주행거리는 꾸준히 늘었다”며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모셔널(현대차·애플)	
모셔널 투자중단 선언	
크루즈(GM)	
무인택시 운행허가 취소, 예산 10억 달러 삭감	
모빌아이(인텔)	
500억 달러 평가목표, 상장후 실제 평가 208억 달러	
아르고AI(포드·폭스바겐)	
2022년 말 폐업	

자료: 각 사

“파나마 운하 가뭄이 기업에 줄 영향 AI 보고서, 인간보다 4개월 빨랐다”

“인공지능(AI) 솔루션은 자전거 같은 도구다.” 알전 비슨 오버워치 데이터 최고경영자(CEO·사진)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사의 AI 솔루션 제품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버워치 데이터는 B2B(기업 간 거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으로, AI 기술로 인터넷 상 다양한 정보를 모아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준다. 호주 출신인 비슨 CEO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스타라이프(글로벌 전자결제 스타트업), 트위터 등을 거쳐 2022년 공동 창업자 3명과 함께 오버워치



데이터를 설립했다. 인터뷰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국제전략포럼(ISF)이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2024 ISF 글로벌 서밋’을 계기로 이뤄졌다. -기업에도 뉴스·콘텐츠 모니터링 부서 있는데, 오버워치 데이터 서비스 왜 필요한가. “기업의 ‘리스크 분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돕는 도구다. 사람이 온라인 콘텐츠를 24시간 감시할 수 없다. 의사결정이 가능한 보고서가 나올

때쯤엔 시간이 지나 쓸모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 반면, AI는 24시간 뉴스와 콘텐츠를 감시하며 발 빠르게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내용을 분석한다.”

-어떻게 분석하나. “AI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다크웹에 떠도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인식해 고객인 기업이나 기관에 중요한 뉴스인지 선별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그다음 판단 근거가 된 콘텐츠 출처를 명확히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어떤 AI 기술이 사용되나. “여러 AI 기술을 혼합해 사용한다. 다른 AI 기업이 만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체 개발한 다양한 IT 기술도 적절히 활용한다.”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나.

“AI가 직접 판단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AI가 분석한 맥락을 제공한다.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사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의 출처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거다. 또한, 가짜뉴스 자체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보고돼야 한다.”

-기업 반응은. “긍정적이다. 고객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AI 기술로 수십만 개 계정 중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2만여개 계정을 바로 주려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몇 주가 걸렸을 일이다. 또 지난달 유력 외신에서 보도된 파나마 운하 가뭄을 현지 언론을 통해 먼저 포착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고객사에 미리 보고했었다.

덕분에 고객사들은 경쟁자보다 4개월 정도 앞서 공급망 둔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AI 정보분석 시장은 더욱 커질까. “상당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미 AI 기업이 아닌 빅데이터 기업 중에선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사)이 된 곳이 있고, 이들은 대형 기업이나 정부와 정보분석 계약을 맺고 있다. 오버워치 데이터는 이 분야를 선도하는 최초의 AI 기업이 되려고 한다.” -AI가 학습하는 콘텐츠 저작권 문제 없나. “일단, AI가 분석하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또한 기존 AI 기업들이 개발한 AI 기술 등을 활용하기에, 저작권을 둘러싼 직접적인 논란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윤상언 기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빌딩 3층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말!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유심칩 판매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버스투어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다녀오신 분들이 적극 추천하는 여행!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 1차 출발 4/16-4/26 2차 출발 6/18-6/28 (영어가이드)
3차 출발 9/17-9/27 4차 출발 10/15-10/25
5차 출발 10/22-11/1 (단풍특선)
-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 / 외도+해금강유람선 / 정동진 레일바이크 / 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 / 여수 소노캄 / 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 / 경주 라한셀렉트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1차	2차	3차	4차
다방 3박+고국 7박	일본 3박+고국 7박	다방 3박+고국 7박	다방 3박+고국 7박
5/18-5/29 (노옴선)	5/21-6/1	11/9-11/20 (노옴선)	11/12-11/23
\$3090+항공	\$3590+항공	\$3090+항공	\$3590+항공

3박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4박5일 **동해권** \$999+항공 **금출발**

5박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10박11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3/13~3/19 남프랑스 6박7일 \$2890+항공

3/16~3/28 남미 일주 1차(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190+항공 **미출발**

3/16~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2990+항공

3/22~3/28 페루 일주 6박7일 \$2890+항공

3/25~3/31 봄방학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3/29~4/10 남미 일주 2차(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190+항공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3990+항공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5~7/0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9/17~9/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9/17~9/30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고교) 9박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4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사내선) \$5190+항공

11/12~11/20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31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TMCI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고국 건강 검진

세브란스 (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삼성서울병원 (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경희대병원 (특화검진)
남/여 \$610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줄

뷰티관광

GLOVI 글로벌성형외과
관리와 성형을 함께!
울썬라 100만원~
논트임 160만원

W MEDI WIN
국내최고의 병원 제휴!
비노기과, 안과
치과, 한방병원 등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3박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유공원, 태국특산물	푸켓 3박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이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할롬사원, 코끼리 트래킹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명요, 생물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다방 3박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보강, 일본내원고, 켄가사당, 풍총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선자사원, 다방대성당	대만 3박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계 야시장, 서문정거라, 태로산협곡, 화련 일성당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양 국립공원, 자우런거리	싱가폴 3박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워터, 현대스퀘어 브릿지, 하지데인, 부기스재래시장, 메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스비티
--	---	--	--	--	---

토요 특선 \$95

롱우드 가든 3월 16일

필라델피아 4월 6일

네츄럴 브릿지 +수목원 5월 4일

워싱턴 벚꽃길
도보여행 \$89 (4인이상 수시 출발)

낭만의 벚꽃 런치 크루즈 \$189
3/22, 3/29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일출발**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6일 \$1350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 브루클린 나이아가라
3박4일 \$899

뉴욕 **일출발**
1박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더풀 \$125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일출발**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9일 \$145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4일 \$8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5일 \$10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유권자들이 앞으로 50년은 보게 될 공약”

빨간 조끼 '공약 택배' 배달원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총선 현장을 찾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빨간 조끼를 입고 택배 배달원으로 꾸며졌다. 정책을 '주문'하기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27일에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를 찾았다.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후보를 상대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다. 윤 후보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유명하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대응 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16호 총선 공약이었다. 흔히 진보 이슈인 기후변화 공약에 보수 정당이 어쨌든 손가락을 얹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지역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총선에서 중앙당 차원의 정책 공약은 대통령 선거보다 덜 주목받는다. 그래도 합리적 중도 성향의 무당층(스윙 보터)의 흔들리는 마음을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을 비롯해 치열하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공약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열성이다. 지난달 18일 ▶부총리급 인 구부 신설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향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을 낸 이후 꾸준히 16호 공약까지 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2학기 전면 시행 등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2호),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재축 재도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3호), 철도 지하화(4호), 간병비 국가 책임 단계적 강화와 경로당·노인 복지관 점심 제공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6호),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10호), 예비부부·갯결혼부부 대상의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과 전세용 버팀목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요건 완화(12호) 등이 나왔다.

민주당도 같은 날 저출생 공약 발표

여당이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등 저출생 공약을 낸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도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 자녀 출산시 24평, 3 자녀 출산하면 33 평 공공임대 주택인 '보듬주택'을 제공하며 나중에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결혼하면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변화 공약을 담은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생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3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에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도 약속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양육비 국가 대지급,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동물복지, 고금리 부담 완화,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등 공약

발표가 이어졌지만 당내 공천 과동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반면, 정치인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의 정책 공약은 이슈화에 성공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경찰관·소방관 지원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는 반대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공동대표를 맡은 새로운 미래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에 이어 법률혼과 혈연이 아닌 새로운 가족 구성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돌봄중심 생활동반

자법' 제정을 약속했다. 거대 양당의 틈새를 파고들어야 하는 3지대 정당은 정책 공약을 공격적으로 내고 있다.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해 전체 공약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만큼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총선용’ 비판

여당의 공식적인 정책 공약은 아니

분열, 반사이익, 중도확장이 총선 승패 갈라

『좋은 불평등』의 저자 최병천

최병천(사진)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신간 『이기는 정치학』에서 현재와 같은 양당제가 본격화한 2004년 총선 이후 지금까지 5번의 총선에서 분열, 반사이익, 중도확장이 승패를 가른 3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 소장은 2022년 『좋은 불평등』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운동권 경제학'을 비판해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2004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이겼다.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반사이익을 봤고, 2016년은 상대방의 분열과 반사이익, 문재인-김종민 비대위의 과감한 중도확장이 결함된 결과라고 했다. 2020년 총선도 세 요인이 다 작용했는데 K방역에 대한 자유한국당(현재 국회 계열)의 반대와 외신의 찬사로 '국뽕 선거'가 됐다고 최 소장은 썼다. 국회 계열이 승리한 2008년은 노무현 정부 심판(반사이

익)과 이명박의 중도실용주의(중도 확장) 영향이 컸고 2012년 역시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추진(반사이익)과 박근혜 비대위의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중도 확장)가 먹혔다. 최 소장은 정책 공약이 큰 역할을 한 특이한 총선으로 2012년 총선을 꼽았다.

-왜 그런가. “2012년 4월 총선은 이명박 정부 5년 차였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권심판론이 강해진다. ‘참패하기 딱 좋은’ 시점이었다. ‘미래권력’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중도확장에 성공했다. ‘민주당스러운 정책’으로 민주당의 중도표를 가져갔다. ‘줄푸세’의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박근혜로 변신했다. (줄푸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대통령 선거에 비해 총선에선 정책 공약이 덜 부각되는 것

같다.

“정책에 미치는 국회의 영향력이 행정부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이기면 행정부까지 장악하지만 총선에서 이겨도 의회 권력뿐이다. 지방정부까지 공무원이 200만 명이지만 국회는 예산정책처 등 국회 유관기관까지 다 합해도 1만 명이 안 된다. 상근자 숫자가 조직적이고 영향력이다. 그러나 정책 공약의 진실성과 책임성도 떨어진다.”

-그래도 정책을 들여다보는 유권자는 있다.

“정책 공약은 정당의 공적인 약속이다.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신뢰받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 공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박근혜는 아버지 기일에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입니다’라는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전략적인 추모사를 남겼다. 실제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각론도 잘 준비돼 있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보육 등 본인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서 챙길 것은 챙겨라. 좋은 정책에 반응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정당도 정교한 정책을 내놓는다.”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세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GREEN

Essays for Kids (Grades 5-8)

VIOLET

Boarding Admissions (Grade 8)

BLUE

Essay Contests (Grades 8-11)

ORANGE

Journals (Grades 9-11)

BROWN

HYPS Portfolios (Grades 10-11)

RED

College Admissions (Grade 1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엄마 눈물 닦던 '연평해전의 딸' 장교로... 대통령도 목 메었다

(조시은씨)

학군장교 임관식 참석해 "이게 국가" 현 대통령 첫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의 이날 임관식 참석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도중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해군 학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해군 학군사관후보생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제2연평해전 6주년 기념식(2008년)에서 당시 6살이던 시은양이 어머니 강정순씨의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 [뉴스1]



군사관후보생의 참석 사실을 언급하다 눈물을 참는 듯 잠시 침묵했다. 8초간 말을 잊지 못한 윤 대통령은 이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킬 여러분을 보니 정말 든든하다. 이게 바로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간담회에서 조 후보생을 만나 말을 잊지 못한 이유를 전했다. 조 후보생이 윤 대통령에게 "제가 백일 때 아버지께서 손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해군 장교가 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시은 양이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

은 것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말을 잊지 못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대견하다"고 격려했다.

조 후보생은 6살 때이던 2008년 연평해전 6주기 추도식에서 어머니 강정순씨의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이 사진으

로 찍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유가족의 아픔이 또 한 번 국민에게 전달되는 계기였다. 지난해 2월 해군 간부가 되기 위해 부경대 해군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입단했고 내년 3월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고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찾아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는 글을 남기고 헌화와 묵념으로 예의를 표했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8월 이후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띄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별히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보수 지지층인 TK(대구·경북)에 손을 내미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태민 기자**

선거구 획정 또 무산시킨 여야... "당리당락 우선, 유권자 뒷전"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28일 또 결렬됐다. 선거구 획정 협정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당리당락적 계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다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선거구를 추가로 조정하자고 요구했다. (수용 안 되면) 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협상을 파기하고 나갔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넘긴 안은 서울·전북을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를 1석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여야는 '전북 1석 감소로 범위를 좁혔고, 전북 1석 삭감 대신 비례대표에서 1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 대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획정위안 가운데 2개에서 1개로 합구되는 '부산 남강·울'과 2개에서 3개로 분구되는 '부산 북·강서갑·울'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합구·분구되면 손해를 볼 박재호(부산 남울) 의원과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을 살리기 위한 조정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부산 총 의석수(18석)를 줄이지 않기로 한다면 구획을 일부 조정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며 "막상 세부 협상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뒤

집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현역인 경기 동두천·연천,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획정위 안이 아닌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여당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민주당 현역 지역 구획조정을 반대하는 건 국민의힘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29일 예고한 삼특검 재표결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빠른 재표결도 현역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윤재욱 원내대표)며 난감해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확정됐어야 할 선거구획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최장 지연된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을 넘어서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고조될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막판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위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29일 오전 10시로 연기해냈다. **김효성·강보현 기자**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 성감별 금지법 37년 만에 위헌

(32주전)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늬름'이나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의사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딸이다" "아들이다"란 사실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28일 헌법재판소는 6:3의 다수 의견으로, 임신 32주가 넘을 때까지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현재 위헌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됐다.

현재는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판단했는데, 당시엔 성별 고지 금지 자체는 유지해야 하나 조항

을 수정해야 한다고만 했는데(헌법불합치 결정), 이번에는 금지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보고 아예 해당 조항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현재의 판단이 달라진 건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해야 할 만큼 남아선호사상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성별 고지 금지가 우리 법에 처음 등장한 1987년은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때였다. 여아 100명당 남아 103~107명을 자연적 출생성비로 보는데, 1980년대 말 110명 이상으로 치솟았고 2007년에서야 정상범위로 돌아왔다. 다만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정

상범위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다. 현재가 아직은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버릴 수 없다고 판단한 2008년에만 해도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16.6이었다.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난 뒤야야 정상범위에 진입(2014년 106.7)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2022년 103.9).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셋째아 이상도 자연 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는 성별 관련 인위적 개입이 없어 보인다"며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성별 때문에 낙태하던 시절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게 곧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금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관들은 문제의 의료법 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임신 32주 이전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이는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쓸데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다만 소수의 헌법재판관(이종석·이은애·김형두)은 32주보다는 더 빨리 고지 금지를 풀고 고지 금지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헌법불합치)을 냈다.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고, 남아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자녀 성별 선호는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 낙태의 97.7%가 임신 16주 이전에 행해진다는 사실과 기술의 발달로 성별 확인 시기가 이전보다 앞당겨졌다는 사실(16주→10주)을 합해 보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위헌 결정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아빠이자 변호사인 청구인들이 낸 호소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사이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7개월 아이의 아빠인 노필립 변호사는 "부모의 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역에 들어오게 돼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15개월 아이의 아빠인 강성민 변호사는 "현재가 시대 현실을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고"고 했다. **문현경·오삼권 기자**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희소식!

2004년부터 2019년도에 VISA/MASTER CARD로
매출을 올리셨다면 수수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부터 Visa 및 Mastercard card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뉴욕 동부 법원은 최소 총 지불금 55억 4천만 달러를 예비 승인했습니다.
15년 동안 정산 수수료로 약 100만 달러를 받은 매장은 약 10,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자격이 있나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Visa 또는 Mastercard로
매출을 올린 사업자로 약 12백만~18백만 개 기업이
해당 소송에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WORLD BANK CARD SERVICES로
연락주세요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탈당은 자유” 안 붙잡는 이재명...곽상언 공천, 흥영표 컷오프

(노무현 사위)

(친문)

홍 ‘피칠갑’ 발인 다음날 탈락 수순 떨어진 임종석 “납득안돼, 재고름”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

현역 의원 연쇄 탈당으로 번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28일 보인 반응이다. 이 대표는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친명형제, 비명형사’라는 반발이 잇따르지만 현재의 공천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변재일·안민석·흥영표·기동민·이장섭 등 현역 의원 5명의 지역구를 한꺼번에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추가 ‘컷오프’(공천 배제) 수순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정책감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러닝머신 모니터로 전날 공천이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반발 기자회견을 지켜본 직후였다. 이 대표는 당 공천 잡음에 대해선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자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서대문구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감담회 전 러닝머신 조작법을 배우고 있다. 화면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다.

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연쇄 탈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질 것 같으니가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국민이 보시기에 아깝잖아”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천에 대한 불만이 속출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이다. 물론 작은 가지들은 서로 부딪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공천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최근까지 8명의 의원이 탈당하거나

탈당 수순을 밟고 있다. 1월 초 이원욱·김종민·조용천 의원의 동반 탈당을 시작으로, 이달 1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의원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22일엔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탈당했고, 의원평가 감산 대상에 속한 박영순(27일)·설훈(28일) 의원도 당적을 내려놓았다. 이상헌(울산 북)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를 진보당에 양보하기로 한 당 차원의 결

정에 반발하며 29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40년 가까이 민주당에 몸담은 설훈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私黨)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의 측근과만 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 후보자

사·도	선거구	후보자
서울	종로	곽상언
	송파갑	조재희
경기	구리	윤호중
	김포을	박상혁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김도균

2인 경선

사·도	선거구	후보자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정호준
	춘천-철원-화천-양구	유정배·전성
목포	김원배-배중호	
	고흥-보성-경흥-강진	김승남·문금주

김성룡 기자

그러나 몰같이 공천 기조는 이날도 이어졌다. 당 공관위는 서울 성북을(기동민), 인천 부평을(흥영표), 경기 오산(안민석), 충북 청주서원(이장섭), 충북 청주청원(변재일) 등 현역 의원 지역구 5곳과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이 뛰고 있는 경기 용인갑까지 6곳을 전략선거구로 의결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전략 경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당에선 사실상 ‘컷오프’ 선고로 여기는 분위기다.

당사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남의 가족을 벗기느라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직격한 흥영표 의원은 “제겐 도덕성 문제, 사법리스크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결사항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했다. 탈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임 전 실장은 “정치생물”이라고 답했다.

정용환·강보현 기자

신인 구자룡·장예찬, 현역 꺾고...김기현·주호영은 방어 성공

(울산 남을)

(대구 수성갑)

김상훈·이현승·서병수·서병수 공천 현역 강세 여전...“공관위 조정 필요”

국민의힘 4·10 총선 2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도 ‘현역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구 26곳을 대상으로 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23곳은 본선 진출이 확정됐고, 3곳은 5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사람이 없어 결선을 치르기로 했다.

울산 남을에선 지역구 현역인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4년 만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5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서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3선인 김상훈(대구 서)·이현승(부산 부산진을) 의원도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서병수 의원은 울산 울주 경선에서 승리해 앞서 부산 북-강서갑에 전략공천 된 5선 서병수 의원과 함께 2회 연속 ‘형제 공천’을 받게 됐다.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 23곳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2차 경선 결과 26곳을 발표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이 포함된 곳은 모두 18곳이었다. 이중 12곳에서 현역이 안방을 지켰다.

1차 경선 발표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 5명 모두가 승리한 것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경선 결과가 발표된 23곳의 현역 의원 승률은 73.9%(17곳)다. 탈락한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초선이었다. 대구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

구시장에게, 부산 연제의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졌다. 권 전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전직 의원 출신이다. 종편 패널로 인지도를 쌓은 도전자들도 현역을 꺾었다. 부산 수영에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 전 봉민 의원을,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대위원이 비례대표 출신 조수진 의원에게 이겨 공천을 따냈다. 울산 대동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

시·도	선거구	후보자	시·도	선거구	후보자	시·도	선거구	후보자
서울	양천갑	구자룡	대구	수성갑	주호영	경기	성남분당을	김은혜
	송파병	김근식		달서병	권영진		포항북	김정재
부산	부산진을	이현승	대전	유성갑	윤소식	경북	경주	김석기
	금정	백중현		대덕	박경호		김천	송연석
대구	연제	김희정	울산	남동	김기현	경남	구미갑	구자근
	수영	장예찬		울주	서병수		상주-문경	임이자
서울	북을	김승수	경기	세종을	이준배	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광주을	황명주						

결선 지역구

시·도	선거구	후보자	시·도	선거구	후보자	시·도	선거구	후보자
부산	동래	김희곤·서지영	대구	중남	도태우·임병현	경북	포항남-울릉	김병욱·이상휘

[연합뉴스]

령실 출신 인사 중에선 김은혜 전 홍보 수석이 유일하게 경기 성남분당을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날 공천에서도 ‘현역 강세’가 이어지며 “이대로면 ‘끈대남’ 정당이 될 것”(수도권 의원)이란 자조도 이어졌다. 이날까지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155명의 평균연령은 58.2세였다. 이 중 30·40대는 20명(12.9%)에 불과하다. 여

성 후보는 10명 중 한 명꼴(16명, 10.3%)인데, 절반이 전·현직 의원이다. 정치 신인은 대부분 열세 지역에 공천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29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영입하고 환영식을 연다. 김 전 본부장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단장과 주영국 대사 등을 지냈다.

김기정·전민구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2023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24년 전 첫 파업, 선배 의사들 “병원 복귀해 정부와 대화를”

복귀 테드라인 앞 전공의들에 호소 “정부도 지금처럼 강경대응 안돼”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시한(29일)이 닥친 가운데 ‘파업 원조’ 의사들이 후배 구하기에 나섰다. 전공의에게는 “진료 현장 복귀”를, 정부에는 “강경 대응 완화”를 주문한다. 환자단체도 “제발 우리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전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9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며, 대화를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이대 증원 신청 자체를 요청했다. 후배 살리기에 나선 의사들은 2000

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을 주도한 이들이다. 당시 전공의들은 낙담 파업을 벌였고, 의과대학 학생들도 동맹휴업을 했다. 한국 의료 역사에서 첫 파업이었다. 정부가 의사에게 밀려 의대 정원 10% 감축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의대생의 상당수는 휴업 때문에 이듬해 의사 국가시험에 떨어져 면허증 취득이 늦어졌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의사가 간곡히 호소했다.

당시 파업 선봉에 선 지방의 한 의사는 “일단 들어와서 정부와 싸워야 한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또 진료실을 뛰쳐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들어와서 환자를

지키면서 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00년 파업의 주역으로, 지난 23일 ‘전공의 선생님께’라는 장문의 글을 올린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도 다시 나섰다. 권 교수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대책의 일부가 현실성이 없다는 전공의 주장에 동의한다. 일단 복귀해 이 패키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표단을 구성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젊은 의사들(전공의를 지칭)이 법과 제도의 역사, 그리고 한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투쟁을 하면 상처만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빅5’ 병원의 교수(2000년 파업 당시 레지던트 2년 차)는 “전공의나 정부가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가서는 위험하다. 양측이 물러서야 한다”며 “정부가 매일 행정처분과 사법대응으로 압박하고 검찰총장이 나서서 방식의 강경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4년 전 이대 본과 3학년이었던 다른 대학병원의 교수는 “돌아오라고 전공의를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정부 강경조치에 피해를 볼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회장은 28일 중앙일보에 “부디 병원으로,

여러분 자리로 복귀해 주십시오. 누구보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눈물을 의면하지 말고 떨리는 두 손을 잡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6개 환우회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입장을 담았다. 백 회장은 “하루하루 생명의 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지금 사태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 이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시간”이라며 “강대강으로 대립하지 말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영향으로 10여 건의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밀렸다고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채혜선 기자

정부, 전공의에 대화 장소 공지... 의협 “대학 증원신청 자체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29일)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선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판까지 직접 나서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28일 전공의 대상 전체 문자를 통해 “공식 발표를 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과 만나겠다고 알렸다.

박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길 바란다.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며 “위 장소에서 기다리겠다. 허심탄회하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빈 환자용 침대를 지나고 있다. 이날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른쪽 사진).



이날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른쪽 사진).

게 대화하자”고 했다.

박 차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몇 명이 모일지는 알 수 없다. 적은 수가 오히려도 예정대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대화를 준비 중이라며,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증원에 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2일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응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

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교육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의 순서로 진행돼야 하나 정부는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3월 4일 총장님들의 증원 신청 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떠난 제자들의 복

귀 여부가 달려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 의료계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의협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호소문의 메시지는 전국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대학 본부에 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명령이 내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편 송달 시 폐문·부재로 수취가 안 된 경우도 있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직접 교부 송달 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9937명으로 약 80.8%에 해당된다. 8992명(73.1%)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황수연·채혜선 기자

3년차 전공의 “자격증 갖고 싸우라는 교수 설득에 복귀”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29일)을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복귀하는 전공의 중에는 “환자들이 눈에 밟혔다”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전공의 수련을 끝마치기 위

해 복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선 전국 병원의 일부 전공의가 복귀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광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철회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낸 후에도 당직을 서거나 현장 일손을 돕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한다. 사직서를 썼다가 복귀한 한 서울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는 “1분 1초 생사를 다루는 중환자실 신생아들이 걱정됐다”며 “남몰래 당직을 맡고 있고, 낮에는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병원 근처에서 상시 대기 중”이라고 했다. 그는 비

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교수를 돕는 전공의들이 있다고도 전했다. 상급종합병원 내과 3년 차 전공의 B씨는 수료를 위해 복귀한 경우다. 그는 지난 16일 사직서를 썼다가 열흘 만인 26일 병원으로 돌아왔다. B씨는 “환자가 걱정된 것도 맞지만 ‘싸우더라도 보드(board·전문의 자격)를 갖고 소리를 내라’는 교수님 설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황수연·채혜선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철없이 함부로 담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룻강아지’는 며칠 된 강아지일까? 글자 모양으로 보서는 태어난 지 하루가 된 강아지가 아닐까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루+강아지’ 형태에서 ‘하루’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면 ‘하룻강아지’가 되니 이러한 확신을 준다. 그러나 태어난 지 하루가 된 강아지라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룻강아지’는 낱짜를 세는 ‘하루’와는 관계가 없다. ‘하룻강아지’는 ‘하룻강아지’가 변한 말이다. 즉 ‘하룻+강아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룻’은 짐승의 나이를 셀 때 사용하는 말로, 나이가 한 살 된 소·말·개 등을 이르는 낱말이다.

한 살 된 강아지가 ‘하룻강아지’고 이것이 변해 ‘하룻강아지’가 됐다. 그러니까 ‘하룻강아지’는 하루가 아니라 한 살짜리 강아지다. 하룻망아지·하룻송아지·하룻비둘기 등도 하룻강아지처럼 한 살짜리 동물을 일컫는 말이다.

짐승의 나이를 셀 때 사용하는 말로는 ‘하룻’ 외에 ‘두루’ ‘사루’ ‘나루’ 등이 있다. 각각 두 살, 세 살, 네 살을 가리킨다.

정리하면 ‘하룻강아지’는 하루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가 아니라 한 살짜리 강아지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흥주 칼럼

한국은 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야 한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보다, ‘이익의 계산’을 앞세운다.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무슨 일이건 사업가적인 판단을 한다. 지난 집권시절에도 통상분야는 물론이고 안보분야에까지 사업가기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트럼프는 주한·주일미군 배치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성장군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존 켈리 전실장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미 관계의 급변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보다 자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안보태세를 갖춰야만 한다고 본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유세에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며 “나도 동맹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에 이들 동맹을 공격하라고 권유하겠다고 까지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릴 미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세계적 불안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한국 입장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거두고 대세를 굳혔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했다. 두 후보가 독주 체제를 보임에 따라 양당은 조기 대선 레이스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종 사법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경선 초반부터 당내 대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방위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하고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까지 나온다.

한국은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한미 가치 동맹의 훼손을 막는 동시에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압도적 힘으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2020년 집권 때 보여준 모습과 이번 선거 과정에 쏟아낸 말들, 4~5년 전보다 더 복잡해진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트럼프 2기는 1기 때보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그는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적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대만 지원 약화, 이스라엘 지원 강화, 동맹국들에 대한 높은 비용 청구, 그의 재집권은 최근 몇 년 새 뚜렷해지고 있는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을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2기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크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 전략자산 배치 등 동맹 비용에 대한 한국 부담을 더 늘리

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3차례나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구하고, 여기에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에 한·미 공조에 더 속도를 내는 것과 위험 분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려는 결보면 전자쪽으로 기운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확장억제 논의처럼 차근차근 논의를 이어갈 사안도 있지만, 모든 사안에서 관성적으로 미·일 일변도 외교에 매달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가 재집권하면 대만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검토와 미중 통상 갈등 심화 등으로 국제 경제·안보 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미 일본·독일 등은 트럼프 캠프와의 접촉을 강화하는 등 트럼프 2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반세계화 정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트럼프 리스크에 정교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보·경제 등의 복합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자마당

인공지능 시대

20년 전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을 2045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커즈와일의 예상까지는 아직 20년가량 남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 개발 상황이나 발전 속도를 보면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

새로운 시대나 미래 과학기술은 먼저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이 그려내고, 그 후 사회 전체의 역량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사례가 많다.

어떤 일이나 양면성이 있듯, 인공지능 또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인간 삶의 가치가 부분적으로라도 훼손된다면 이는 역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의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인간지능은 더 오를 곳, 추구할 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점이 오면 인간의 모든 기능은 진보를 멈추고 오히려 상대적인 퇴화로 인해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일어 벌어지지 않을 까.

반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점점 더 진화하며 자기복제를 통해 인간의 영역마저 자신들의 세계

로 만들고, 인간을 자신의 아바타로 종속시키지 않을까.

창조주에 의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보다 더 우수한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창조주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인간은 단지 기존의 것을 조합해 형태를 바꾸고, 특정 기능의 도구를 만들어 낼 뿐이다. 이는 창조가 아니라 개량, 개선일 뿐이다. 결국 인간은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도 인간보다 뛰어날 수 없으며 단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윤천모·폴러턴

백성호 CPA, MBA

백성호 공인회계사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양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누가 자꾸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나

김형석의
100년 산책

연세대 명예교수



지난 정월 말이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과 몇 사람이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바로 그날 아침 신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합의에 따라 양승태 전 원장과 몇몇 판사의 사법 비리를 여러 해를 두고 조사했으나 결백했다는 보도였다. 국민 대부분이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그런 일을 감행했고, 국력의 낭비는 어떠한가를 물게 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

납득 안 됐던 친일파 명단 추가 공개

문재인 정부 때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그랬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친일파 인사들의 명단을 추가로 조사해 발표한 사건이다. 해방 반세기만 지나도 더 거론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미 발표되었던 친일파 인사들 가운데도 거명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당시의 상황이나 처지를 배려해서라도 다시 추가 명단을 발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가 싶었다. 일제 강점기라는 슬픈 역사를 안고 살아오는 동안에 있었던 작은 잘못에 돌을 던지는 일은 정치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배후를 잘 아는 사람들은 김성수나 백낙준 같은 저명

무죄로 나온 양승태 사건 보며
친일파 명단 공개 파동 떠올라

일제 강점기의 상황 무시한 채
일부 잘못만 들춰내 딱지 붙여

아픈 과거가 모여 이뤄낸 오늘
악을 악으로 보복하면 패망뿐

인사를 친일파로 추가함으로, 친일파 배척을 제일 목표로 출범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 명단 저작물의 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구매를 요청하는 사람과 기관이 없어 공공기관에 무료로 기증했다고 한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행했고, 그 결과가 정권에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될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그 명단 작성에 참여했던 한 교수를 만났다. 김성수 건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도 있었다는 얘기가었다. 나는 “인촌 선생이 친일파나, 아니냐는 묻고 싶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김성수 같은 지도자가 국내에 없었다면 우리는 독립 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했다.

공식 행사 참석했다고 친일파 취급

내가 마음 아프게 체험했던 사실 하나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서울대학교 김성태 음대 교수가 100세 탄신을 축하 받는 모임이 있었다. 후배와 제자 음악



그림=김지윤 기자

인들이 축하 잔치에 참석했다. 신문사 기자들도 찾아왔다. 그때 김 교수가 기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나 친일파 명단에서 빠졌어”라고 했다. 앞뒤 실정을 잘 모르는 기자가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다. “내가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였다고 해서 고민을 하였는데, 항일사건에 가담했던 사실이 기록에 있어 갖다 보여 주었더니 친일파 명단에서 빠졌어”라는 설명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김 교수는 나보다 10여 년 선배이고 일찍부터 음악계에 진출했으니까 몇 가지 공식 행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왜 일제에 협력했느냐는 문책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당시를 산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 각 분야에서 일본인보다 앞서면 그것이 애국자라고 인정받던 때였다. 김 교수가 친일에 반대되는 일도 했다는 기록을 제시하고 명단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친일파 명단을 확장했는지 모고 싶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생 가치 평가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권리를 누가 주었는가. 그러고도 세상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을 예사로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를 범죄자로 전락시켰고, 공산주의 정권은 인류 역사의 규탄을 받고 있다.

눈물 머금고 신사 참배했던 교장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일본 총독부는 선교사 조지 매쿰(한국명 윤산은·尹山濼) 교장이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다. 후임인 정두현 교장이 신사 참배를 수용하면서 폐교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우리 학생들을 한국인 교장에게 넘겨주고 떠난 윤산은 교장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전교생에게 자신의 저서를 남겨주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줄 것이라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라 독립도, 자랑스러운 민족의 장래도 개척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불끈 쥔 오른쪽 주먹을 일곱 번이나 하늘로 쳐들면서 “Do!, Do!”라는 고함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곁을 떠났다.

나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자퇴했다가 갈 곳이 없어 일 년 후에 복교했다. 학기 초에 우리는 참배를 위해 평양 신궁으로 끌려갔다. 대열 정리가 끝나고 체육선생의 호령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최경례(最敬禮)’를 했다. 퇴장의 순서는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그 뒤를 따랐다. 나는 키가 작은 편이어서 앞자리에서 교장선생의 모습을 보았다. 주름 잡힌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학생들 앞에서 손수건으로 닦을 수도 없었던 것 같다. 나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학기 초마다 있는 행사였다. 철없는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한 운명이었다.

일 년 후에 숭실학교는 폐교되고 학생들은 일반학교 선생들에게 교육받아야 했다. 정 교장은 숭실전문학교 교사이면서 교회 장로였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눈물겨운 중학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런 아픈 마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민주당처럼 세계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악을 악으로 보복하는 역사는 패망을 초래한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나라가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더지게임 같은 화물차 공포

2012년 8월, 경북 경산의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 25t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졌다. 적재된 컨테이너가 맞은편 차로로 떨어져 주행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덮쳤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비극이었다.

당시 부산 신신대 부두 앞 도로에서 경찰의 단속 현장을 취재했다. 3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이 14대나 됐다. “차가 컨테이너와 같이 넘어가면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고 털어놓는 운전자도 있었다. 그해에만 컨테이너 추락 사고가 5건 이상 일어났다. 당시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한동안 컨테이너를 예의주시하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컨테이너의 공포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운전자들을 또다시 겁에 질리게 한 건 판스프링이다. 판스프링은 원래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로 강한 탄성이 특징이다. 그런데 일부 화물차가 많은 짐을 실을 때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판스프링을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고 있다. 이 판스프링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주행 중에 떨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2018년 1월 경기도 이천 중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밝은 판스프링이 반대차선 승용차 유리로 날아가 운전



지난 25일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덮친 관광버스 내부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가 숨졌다. 숨진 운전자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만큼 사회적 반향도 컸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부터 적극 단속에 나섰다. 2021년 638건, 2022년 1547건이 적발됐다.

최근엔 바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도 안성 경부고속도로에선 화물차 200kg 바퀴가 빠져 관광버스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숨졌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8년 7월에도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일가족이 탄 차량을 덮쳐 1명

이 숨졌다. 컨테이너 단속을 강화하는 사이 판스프링이 사고를 일으키고, 판스프링을 대대적으로 적발하는 사이 바퀴가 빠져 사고를 일으키는 게 흡사 두더지 게임을 연상케 하는 측면도 있다. 고전적인 적재물 낙하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충북 음성 중부고속도로에선 25t 화물차에서 10t 무게의 건설기계 롤러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니 운전자들 사이에선 화물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어느새 ‘국룰’이 됐다. 땀질 단속보다 공포를 해소할 종합적인 화물차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한영의 사회부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건강환치이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인비질라인 지정치과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시 설

오늘 복귀 시한... 전공의는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오늘로 끝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오늘 안에 반드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달 안에 복귀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

반면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생겨 개인의 불이익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문 의료 인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해외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까지 연쇄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의료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어제 전공의 자택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온 기존 방식과 달리 사법 절차를 위해 송달 효력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

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나 ‘전공의 압박하는 부당 명령 전면 철회’ 등 전공의들이 요구한 7개 항목엔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는 내용이 다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2000명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단기간 타협을 이루기엔 정부와 의사 단체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일단도

처에서 벌어지는 환자들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좋다.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병동으로 돌아와야 한다. 비상 투입된 진료지원 인력(PA) 간호사가 전공의가 해야 할 처치를 동영상으로 배우면서 의료사고 책임을 격정할 지경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일부 전공의는 현장에 복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하는 등 전공의의 요구를 수용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지키되 극단적 대응은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우선 전제는 환자의 안전이다. 진료 현장 정상화가 유일한 방법이며 더 이상의 파국을 막는 길이라는 점을 전공의들이 성찰해 주길 바란다.

정부 “미복귀 때 면허정지·사법처리 진행” 공인 응급 상황과 대화 외면하면 요구 관철도 어려워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생겨 개인의 불이익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문 의료 인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해외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까지 연쇄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의료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어제 전공의 자택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온 기존 방식과 달리 사법 절차를 위해 송달 효력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

또 사상 최저 출산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서둘러야

또다시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3만 명으로 1년 사이 1만9200명 감소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는 국가 소멸의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저출산국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이다.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02년 처음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 진입한 뒤 단 한 번도 1.3명을 넘지 못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나 가능성도 없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저출산은 한국 사회에 대한 우울한 성적표다. 일자리와 노동 환경, 집값 등 거주 안정성, 보육과 교육까지 한국 사회 전반의 상황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버겁다는 이야기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이다.

미래 세대 감소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 고령화에도 가속이 붙는다.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고갈 위험에 빠진 연금 곳간도 더 비어 간다. 초·중·고

와 대학 등은 속속 문을 닫게 된다. 실제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방 소멸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여러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합계출산율이 0.85명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지출(각종 수당과 보육 관련 공공지출)과 육아 휴직 이용 기간, 청년층 고용률, 실질주택가격과 도시 인구 집중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혼외 출생아 비중 등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이 빠짐없이 개선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저출산 문제 해결은 특정 분야 영역에 대한 각개전투식 정책으로 풀 수 없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1차원적 대책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고차원적인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노동·교육·연금 등의 3대 개혁을 추진해 구조개혁을 꺾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아이를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장제원은 억울할까, 편안할까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1 다음 달 20일 전후로 추진 중인 한·일 정상회담이 아직 유동적이다. 회담 추진의 시작은 이랬다. 기시다 총리는 당초 3월로 예정했던 미국 국빈방문이 4월로 미뤄지면서 방한을 모색했다. 지난해 3월 ‘제3차 변제안’이란 결단을 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빛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양국이 선보일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측근에게 준비토록 했다. 우연히 서울 고척돔 경기장에서 같은 시기 오타니가 있는 LA 다저스와 김하성이 있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일 정상이 함께 관람하는 이벤트도 추진하려고 했다. 물론 야구는 걸가지일 뿐 핵심은 회담이었다. 그러나 이를 막고 나선 건 양국의 외교 당국. 관료들의 좋게 말하면 신중함, 나쁘게 말하면 책임 회피 때문이다.

한국 외교부는 “4월 10일 총선 전에 일본 총리가 오면 선거에 마이너스 아니냐”며 주저한다. 일본 외무성도 “잘해야 본전”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더 예민해야 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향적이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한 일 정상이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야 할 텐데 관료들의 눈과 귀, 코는 그저 “잘 안 되면 누가 책임지냐”에 쏠려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해결안이 나온 뒤에도 그랬다. 주일대사관은 일본 내 재일교포 기업인과 단체들의 성의를 기부로 연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오히려 제동을 걸었다. 선불리 기부를 받거나 권유할 경우 두고두고 ‘최순실 사태’ 때와 같은 책임 추궁이 올 수 있으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한심한 일이다.

#2 하지만 요즘 정치권의 총선 공천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공무원들은 조족지혈, 새 밭의 피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친명’은 문재인 대통령 세력, 즉 ‘친문’에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며 공천 학살에 나섰다. 다가오는 당권 경쟁, 대선후보 경쟁에서 아예 경쟁자의

씩을 잘라놓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속보인다. 그러면서 정작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불출마 선언 같은 희생도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보면 온갖 졸속과 편법이 횡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추미애, 조국은 물론 사당화에 혈안인 이재명, 정채래, 장경태 같은 이들 모두 강그리 책임을 물어 ‘공천 아웃’시키는 게 좋다. 그런데 책임은 안 지고 또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게 없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의 “국힘의 석수는 150석에서 160석, 민주당은 110석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발언을 듣고 쓰악했다. 예측이야 자유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엑스포 유치 총괄 책임자로 투표 직전 인터뷰에 나와 “당일 조박

권성동도, 김기현도 버티니 승리 책임을 묻지도, 지지도 않는 나라 책임지고 나선 쪽이 손해봐서야

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던 장본인이다. ‘119대 29’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에게 책임 추궁은 커녕 단순공천을 주니 그런 미끼나 말거나 발언을 또 반복한다. 하기가 당시 한덕수 총리 이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 이하 아무도 책임지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책임지면 손해본다’는 풍토가 자리 잡고 만 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갈끔하게(혹은 순진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건 장제원 의원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윤핵관 2선 후퇴론이 불거져도 버티기로 일관했던 권성동 의원, 회대의 ‘SNS 당대표 사퇴’ 후 잠수를 타다 막판 등장한 김기현 의원 모두 결국 자신의 선거구를 지켜냈다. 나머지 친윤 핵심들도 마찬가지. 책임 안 지고 버티니 살아났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장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성급한 결단을 후회할까, 아님 맹자의 ‘불원천 불유인’(不怨天不尤人·군자와 선비는 남 아닌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고 있을까.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88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www.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종윤
기자재보 및 기사관련: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또 그래?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제도아리 (자색강황)
- 발효 양배추
- 여주
- 생강
- 5가지 위장에 특화된 약초



오키나와 제도아리
\$10 할인
-2/29 까지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지방 분해 리파아제

단백질 분해 프로테아제

섬유소 분해 셀룰라아제

탄수화물 분해 아밀라아제

유제품 분해 락타아제

5 5대 소화효소 함유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고립)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소화효소 \$10 할인
-2/29 까지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49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FEB. 29th - MAR. 3rd, 2024

단, 목/금/토/일요일에 한함

★ 3월 3일은 ★

3겹살 먹어야 돼지!

\$3.33 LB



★ FAMILY PACK
냉동 삼겹살 구이
FROZEN PORK SLICED SINGLE RIB-BELLY
LIMIT 2 PACK



LIMIT 2 PACK
냉동 삼겹살 수육
FROZEN PORK SINGLE RIB-BELLY CHUNK



양념 삼겹살 주물럭
MARINATED PORK SINGLE BELLY CHOP (JUMULLEOK)
LIMIT 2 PACK

편집중 오답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arling, VA
30 Falcon Hill Dr. Starling
VA 2016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0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0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00 Ebon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West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Silver Spring, MD
13025-A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February 29,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베이비부머, 욕실 개조에 투자 안 아낀다

주택 리모델링 트렌드

팬데믹부터 시작된 주택 리모델링 붐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 상황에서 홈오너들은 상환 중인 모기지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대신 거주 중인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 집에 오래 거주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첫 집 장만 후 몇 년 뒤 집을 넓혀갈 계획을 세웠던 밀레니얼 세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년 전 패서디나에 첫 집을 장만하면서 10년 안에 더 큰 집으로 넓혀갈 계획을 세웠던 박모(37)씨는 “최근 모기지 이자가 너무 올라 이사는 꿈도 꿀 수 없다”며 “집을 구입했을 당시엔 아이가 없었지만 이제 자녀도 생겨 아이를 위한 놀이공간부터 안전한 뒷마당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올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올해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홈오너들을 위해 최근 리모델링 트렌드를 알아봤다.

▶대가족 위한 개조

높은 집값과 렌트비로 인해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중장년층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ADUs(Accessory Dwelling Units)나 게스트 하우스, 차고 개조를 의뢰하는 홈오너들이 증가했다. 주택개발업체 더플랜컬렉션(The Plan Collection)에 따르면 지난해 차고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가라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가족 수가 늘면서 별도의 출입문 추가를 비롯해 지



채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리모델링 시 홈오피스를 추가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unsplash.com 캡처]

대가족 위한 차고, 지하실 개조 관심 커 자연재해 대비 창문, 지붕 교체에 투자

하실 업그레이드, 세컨드 키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또 실내가 개방형인 경우 방을 추가하거나 가벽을 세워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 외에 손자, 손녀와 함께 거주하는 시니어 가구도 늘고 있는데 이들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이나 놀이 공간을 추가하기도 한다.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 휴 문은 신발과 옷을 벗을 수 있는 현관 옆 머드룸(Mudrooms) 공간을 추가하는 것도 인기. 이외에도 가족 수가 늘면서 선반과 캐비닛, 싱크대 등 수납공간이 잘 갖춰진 다목적룸을 만들고 싶어 하는 홈오너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 리모델링 업체들의 설명이다.

▶시니어용 욕실

베이비부머의 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안전. 리모델링 전문업체들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 리프트, 대형 욕조, 대형 샤워부스 관련 리모델링 문의가 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여생을 보내길 원하기 때문에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시니어들의 안전과 직결된 욕실 업그레이드는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거동이 편리한 대형 샤워부스를 만드는 것부터 대형 샤워기를 설치하거나 흡수판을 위

해 스템샤워기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자연재해 대비

극심한 기후 변화는 주택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전보다 여름은 훨씬 더 더워졌고 겨울엔 더 춥고 비도 많이 내리다 보니 이젠 폭 산폭대기나 해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홍수, 허리케인,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래된 기존 창문을 에너지 고효율 창문으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해 집 태양광 패널 설치, 정전을 대비해 발전기를 들여놓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전력이 끊기는 것을 경험한 홈오너들은 전력망 불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런 업그레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현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도장	창고
식당 달은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달은 자리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7,100 SF, 와잇마쉬 MD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버지니아헨튼
식당 달은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사무실	상가
식당 달은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 부근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식당 달은 자리 7800 SF, 임대, VA 에쉬번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택
식당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VA 맥클린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차고 1,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 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k@dwellwashington.com



돈 1000만원 있는데 뭘 사야 돈이 될까요

“투자 첫걸음은 ABC”

(AI·바이오·중국 국유기업)

지금 여윌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까요? 머니랩이 투자 전문가들에게 당장 1000만원·1억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지 물어봤습니다. 이 쉽지 않은 질문에 답을 준 것은 3인의 투자 전문가입니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등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추적하는 액티브 ETF 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목대균 KCGI자산운용 운용총괄대표(CIO)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해외펀드를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신영덕 KB증권 WM투자전략부 이사는 KB증권 WM스타자문단 소속인 자산배분 전문가입니다. 안효성 기자



천만원이 있다면



신영덕
WM투자전략부 이사 KB증권

AI 빅테크 혹은 국내 반도체

선택 이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분위기고, 당분간 IT 성장주의 매력은 더욱 빛날 것이다. 지난해 챗GPT로 촉발된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될 거다.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빅테크 및 반도체 관련 주식이 향후에도 주도주 지위를 굳건히 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투자포인트: AI 성장성에 주목하라. 거의 모든 일상에 AI의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과거 컴퓨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처럼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본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엔비디아 등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M7)'에 집중투자하거나, 반도체 섹터에만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만약 엔비디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엔비디아의 비중이 작은 빅테크 등 관련 ETF를 담아도 좋다. 국내 반도체 관련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포함된 것을 추천한다.



목대균
운용총괄대표(CIO) KCGI자산운용

바닥 친 중국 국유기업

선택 이유: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보다 자본수의 극대화를 목표로 투자해야 한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SOE)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하방 리스크 대비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중국 지수가 아닌 개별기업 투자를 권한다.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매크로 경제, 산업 업황, 개별 기업 이슈 등이 각각 3분의 1씩이다. 매크로 경제는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경제 침체 국면이 지속하면서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별 기업 투자가 좋아 보인다.

투자포인트: 중국 SOE 중 성장성과 배당 여력이 높고 부채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리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외국인의 중국 증시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진행할 것이다. 국유기업들이 ROE 상승을 위해 단계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해 펀더멘털을 개선시킨다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김남의
ETF본부장 타임폴리오자산운용

K바이오

선택 이유: 지난 1년간 글로벌 바이오섹터는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금리 하락 시점을 쉽게 예상할 수 없지만, 올 하반기 금리가 하락해 안정화된다면 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가능할 거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비만·치매 관련 굵직한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투자포인트: 비만치료제는 임상이 계속 화제가 되고, 시장도 커질 전망이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새로운 임상 결과도 각각 올해 1분기와 상반기 중 발표된다. 치매 역시 기존에 없던 치료법이 나오면서 치료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임상 결과 발표는 국내 관련 바이오 회사들에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암 관련 신약의 FDA(미국 식품의약국) 우선심사 결과 나오나. 이 신약의 미국 판매사인 존슨앤드존슨(J&J)도 사활을 걸고 있어 심사에 결과에 따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올해 안 FDA 승인도 예상된다.

일억원이 있다면

인도, 그리고 국제

선택 이유: 인도는 올해도 밝은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가 기대되는 인도 주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국채는 위험 대비 수익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 투자할 자산이 커질수록 신흥국 등에 대한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1000만원이 원펀드 투자였다면, 1억원부터는 4첩 반상, 7첩 반상 등은 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미국 빅테크와 국내 반도체, 인도 주식형 등 주식에 70%, 한국 장기 국채에 30%를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투자포인트: 주식은 투자처가 성장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인도는 지금 가장 고성장하는 국가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후 '베스트 차이나' 입지를 구축해 왔다. 제조업을 육성하는 '메이크인인디아' 같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은) 인구구조도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하는 이유다. 채권은 경기 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금융환경에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AI 인프라 성장주와 비트코인

선택 이유: 단일 종목에 모두 투자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종목을 잘 선정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미국 AI 인프라 성장주에 90%인 9000만원을 투자하고, 남은 10%인 1000만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투자포인트: 미국은 첨단 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자국 공급망을 갖추려고 한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한다. 펀더멘털이 우수한 미국 AI 핵심부품 기업과 첨단 공정 반도체 장비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투자를 제안하는 건 희소성 때문이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하락하는 4월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을 약 5% 편입한다면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역시, 인공지능

선택 이유: 지난해 챗GPT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AI 열풍이 올해도 뜨겁다. 지난 1년간 200% 이상 상승하며 AI 인기를 보여준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올해는 GPT스토어가 오픈하면서 다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 전 세계 대기업 모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AI를 선정해 막대한 현금을 투자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포인트: 전문가들은 몇 년 후에는 AI가 당연시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한다. 로봇 분야의 혁신도 AI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에서 발표한 휴머노이드는 기존 인간형 로봇에서 볼 수 없던 섬세한 움직임의 AI 코딩을 통해 구현해 냈다. 자율주행 모드도 향후 AI 기술이 접목돼 더욱 발전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예시 외에도 최근에 발표된 갤럭시 S24처럼 이제 스마트폰·차량·가전 등에서 AI를 통해 구현된 서비스를 즐기는 시대가 오고 있다.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 개런티 이자
- / 단기 (3년, 5년, 7년)
-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3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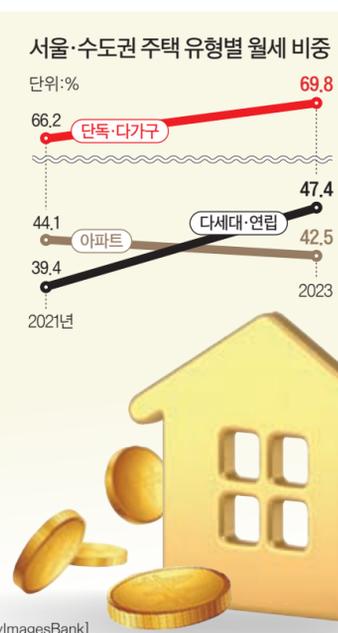


전세대출 심사 탈락, 월급 260만원 중 95만원 내는 월세로

예비신랑 김모(31)씨는 경기 남양주 발라에 무리를 해서라도 전세로 신혼 집을 얻을 계획을 세웠지만, 아쩔 수 없이 월셋집을 계약했다. 당초 2억2000만원짜리 투룸 전세를 얻고 싶었지만 소득 부족으로 은행 대출 심사에 탈락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월세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95만원짜리를 구했다. 김씨는 “세후 월급이 260만원 정도인데, 절반가량을 월세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라도 생기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라고 했다.

전세대출·보증보험 높아진 문턱
금융권, 빌라 전세대출 일부 제한
담보인정비율 강화, 보증가입 난관

전세사기 불안에 월셋값 뒤흔들
작년 빌라 등 월세 비중 66%로 증가
“화곡동 원룸 월세 50만원 이하 없어”



의 위축으로 청년·서민 주거 여건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전세로 살며, 목돈을 마련해 아파트로 상향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 전세에 대한 공포감에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나, 비싼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기피현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단계적으로 주거를 상향하는 기회가 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2022~202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청년·서민층의 주거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전세시장이 붕괴된 때문이다.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월셋값은 치솟고 있고, 다시 전세로 돌아가고 싶어도 대출·보증 문제로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65.6%로 전년보다 6%포인트 증가했다. 비아파트 임대차 계약자 10명 중 6~7명은 월세로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다.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월셋값도 상승했다. 1월 전국 빌라 월세가격지수는 102를 기록, 전담보다 0.09% 올랐다. 이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라도 월세 50만원 이하 매물은 찾기 어렵고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투룸은 기본 100만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로 젊은 직장인 위주로 인기가 높았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는 빠르게 월세로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월세는 치솟고 있다. 빌라 등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청년·서민층에는 정부가 강화한 전세대출 자격과 전세금반환보증

보험 문턱도 걸림돌이다.

프롭테크기업 집토스가 서울·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갱신 예정인 빌라 전세계약의 66%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담보인정비율 100%에서 90%로 강화됐다.

금융권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부실 위험

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비대면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제한하거나 아예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은행이 담보 측정이 어려운 비아파트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하지만 상생금융 차원에서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설상가상으로 빌라 공급이 위축되면서 청년·서민층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1만 4785가구에 그쳤다. 전년 대비 무려 70% 가까이 급감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전세사기의 온상이라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해줘야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나 전월세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며 “강력한 임대차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정·오유진 기자

백우진의 돈의 세계

유네스코 유산 인플레이

“그나저나 ‘유네스코’는 잊을 만하면 어딘가에서 튀어나와 한국의 무엇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참 비슷하지 않은가.” 『전국축제지량』이 한 지방의 축제를 소개하며 덧붙인 촌평이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유산을 수식한다. 우리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인증으로 활용된다.

이 책이 쓸적 꼬집은 대로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은 많기도 하다. 유네스코 유산은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 세계기록 등 세 유형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는 세계유산이 16건이고 무형문화는 22건, 기록은 18건이다. 포함 56건이다. 세계 전체로는 각각 1199건, 730건, 496건이고 총 2425

건이다.

흔해지면 값이 내려간다.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총량을 설정해 두지 않은 채 등재 유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이름값은 앞으로 점점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유네스코 유산이 되면 받는 혜택, 예컨대 보전을 위한 자금 지원이 있지 않을까? 유네스코는 유산을 심사해 등재해줄 뿐, 각 유산의 보전은 신청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라는 게 이 국제기구의 입장이다.

‘인정 욕구’는 국가나 지자체 단위

로도 나타난다. 중국은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기록에서 18건으로 중국 14건과 일본 7건을 앞질렀다. 한국은 무형문화에서는 22건으로 일본과 비겼다. 전체 숫자로 비교하면, 중국과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한 세계적인 인정을 갈구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오늘도 한국의 상당수 공무원은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는 세계유산을, 다른 곳은 무형문화를 목표로 잡았다. 세계적인 허명보다는 작은 실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행정력과 돈을 돌릴 때도 됐다.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주) 대표

▶▶ 1면 '리모델링'에서 이어집니다

▶▶ 홈오피스

연방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25% 이상이 일주일 중 며칠은 재택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팬데믹 이후 홈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예전엔 홈오피스라 하면 방 1개면 됐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는 물론 성인 자녀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을 수 있어 가족 수대로 홈오피스가 필요해진 상황이 됐다. 그래서 분양 중인 새집의 경우 홈오피스가 3개까지 있는 경우도 적잖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새 주택의 경우 거실이 있는 1층을 비롯해 다락방과 지하실 등 총 3개의 홈오피스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처럼 홈오피스가 2개 이상 있는 주택에 바 이터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엔 리모델링 시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홈오피스를 만들

었다면 최근엔 패밀리룸과 같은 넓은 공간에 프렌치도어, 베란다 등이 딸린 럭셔리 홈오피스 쪽으로 트렌드가 옮겨가는 추세다.

▶▶ 야외 데크
팬데믹 이후 모임과 휴식을 위한 야외 공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홈오너들이 야외 공간 업그레이드 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작은 스크린이 설치된 소형 포치(Porches)라고 한다. 현관 파티오라 볼 수 있는 포치에 스크린을 설치해 이곳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홈디자인 플랫폼 하우스(Houzz)에 따르면 “최근 작은 스크린이 설치된 포치에 대한 검색량이 500%나 증가했다”며 “또 스몰 파티오, 작은 포치 등에 대한 검색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주현 객원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스프링 필드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리스버그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670,000	\$785,000	\$800,000	COMING SOON	COMING SOON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	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배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체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통증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트리 지역]

서울 평균 아파트값 하락하는데... 초고가 아파트는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수석역원대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역대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 175㎡도 지난달 9일 90억원(33층)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7월 같은 면적이 62억원(10층)에 거래됐는데, 반년 만에 가격이 28억원이나 뛰었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가 지난달 12일 역대 최고가인 97억원(3층)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2022년 11월 94억5000만원(8층)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억5000만원 더 비싼 가격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 214㎡도 지난 2일 역대 최고가인 58억원(58층)에 손바뀜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단지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지난 8일 80억원(13층)에 거래됐는데, 2021년 1월 거래된 55억원(6층)보다 25억원 오른 가격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다르다. 고금리 장기화에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경기 무관 '그들만의 리그'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하락
초고가 아파트는 최고치 경신
희소성 큰 단지 사려는 욕구 커

올해 최고가 경신한 서울 초고가 아파트

지역	단지·전용면적(㎡)	거래일	이전 최고가(원)	올해 최고가(원)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06	1월 12일	94억5000만	97억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175	1월 9일	62억	90억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214	2월 2일	47억8000만	58억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192	2월 2일	65억	85억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196	2월 8일	55억	80억

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 이후 침체에 빠져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0.03%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조사(0.00%) 이후 12주 연속 하락이다.

경기 침체 중에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에도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층을 세

분화해보면 고소득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경제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도자는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렵고, 매수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찾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하지만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다르다. 희소성이 높은 단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산가의 수요는 시장 침체기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가격을 내릴 유인이 적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압구정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호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막

차라도 타겠다'는 심정으로 높은 호가에 계약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아파트값 강세를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최근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 대부분은 강남·용산·서초 등 한강변에 위치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학회에서 낸 '한강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논문을 보면 한강 조망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실거래 가격이 0.5%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조사 가구 중 한강 조망률(한강 조망의 비율로 3차원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측정)이 가장 높은 가구가 한강 조망이 전혀 없는 가구에 비해 실거래가격이 전용면적 1㎡당 503만2000원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을 금리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자산가인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은 현재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이들이 선제적으로 매수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뚝뚝한 한 채?... 치솟는 공사비에 애물단지 된 재건축

노원구 59㎡ 3년새 3억원 떨어져
"추가 분담금 걱정에 매물 쌓여"
안전진단 완화 등 당근도 안 먹혀

"어제도 1000만원 낮춰서 집을 팔아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재건축 단지 공사비가 오르면서 집주인이 추가 분담금 걱정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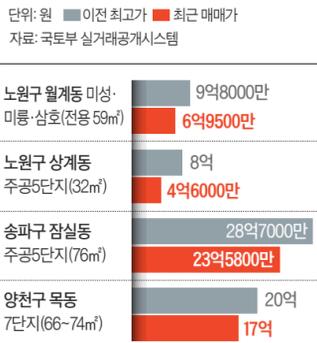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미성·미룡·삼호3차)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7일 "3년 전 9억8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6억9500만원에 팔렸다"며 "노원구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재건축 단지인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날이 치솟는 공사비와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 규모가 커지며 재건축 단지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정부가 도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인데, 여기서 또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투자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재건축 단지는 하락 거래가 부쩍 늘었다.

부동산R114가 작년 11~12월과 올해 1~2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최고 거래가격 등락을 비교한 결과, 연식 30년 초과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요 재건축 단지 매매 현황



는 하락 거래가 59.2%로 서울 전체 평균(49.6%)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반면 상승 거래는 전체 평균(43.8%)보다 한참 낮은 33.8%에 그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작년 특별보증자리론이 중단된 10월께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탔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 수요가 더 줄어든 모습"이라며 "한편 오른 공사비는 과거이익환수금 등을 생각하면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이 과거처럼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다.

특히 10억원 이하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20~30세대의 갭 투자가 많이 몰렸던 노원구는 매매가가 이전 최고가 대비 수억원씩 떨어진 단지가 많다. 상계동 주공5단지는 요즘 매매가가 4억6000만원으로 이전 최고가(8억원)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이 단지는 전용 31㎡(11평) 단일 평형으로만 구성돼 조합원이 84㎡를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이 5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왔고, 조합은 시공사(GS건설)와 계약을 해지했다.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는 이달 23억5800만원에 거래되며 작년보다 2억원 떨어졌고, 양천구 목동 단지들도 작년보다 1억~2억씩 하락 거래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한때 '뚝뚝한 한 채'로 여겨졌지만 거시 경제환경이 변하며 일부 단지는 골칫덩이 신세가 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건설사들도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재건축 단지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민정 기자, 장소진 인턴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물) 웨일리노래방

미라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킨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응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I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895; MD 06-20226; NC 161472; VA MC-2771; DE 030648; TX: PA 101075; WV ML-1108895; MB-1108895; GA 1108895; SC 11088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895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같은 수는 없습니다.

왜 비키리 부동산인가? 왜 약착같은 부동산인가?

- 1 17년 경력의 주택 관리 능력과 16년 연속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탑에이전트,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갖춘 브로커, 비키리입니다.
- 2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법,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혹은 각 카운티 별
준수해야하는 부동산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펫 디파짓: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Non refundable pet deposit 은 불법입니다.
예) 브로커가 아닌 에이전트가 임대주택관리 해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예) 디파짓은 2개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스모크디텍터: 각방마다 각 층마다.
지하실과 주방 이산화탄소 & amp: 스모크디텍터 설치
- 3 고객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며 계약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의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Max Affordable Payment

최근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 체감지수와 달리 올봄 주택시장은 벌써 다시 팬데믹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만큼 핫하다 핫하다는게 시장의 평이다.

여전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에, 어느덧 38,500 포인트를 넘어 서며 사상초유의 4만 포인트 다우지수 시대를 내다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과 맞물려, 비록 금리인하의 소식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 더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지독한 매물부족현상을 겪고있는 현 주택시장은 결국 붕괴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초강세가 이어지리라 쉽게 예상된다.

여전히 높은 이자율과 높은 주택가격에서 이즈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홈바이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내가 얼마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

까일 것이다. 하지만 한번 살짝 틀어서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항상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최대 얼마까지 용자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그 가능한 최대 용자금액을 기준으로 주택구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이상한 뭔가 잘못된 수순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한다.

늘 강조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꼭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저금리 시대의 미련을 버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고금리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자 하는 소비자의 마음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해주는 렌더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현명한 소비자라면 또 고금리시대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배준원
그린웨이 편딩그룹 부사장



이제 그 상황을 직시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페이먼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용자금액을 찾기 보단 은행의 용자승인 여부를 떠나 그에 앞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가능한 페이먼트, 이른바 Maximum Affordable Payment을 찾아서 이를 기준으로 주택구입 계획을 수립하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기지 페이먼트 계산기를 활용해서 대략적인 예상 모기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 잣대로 정해진 가능한 가장 부담없는 편안한 페이먼트의 최대치, 바로 Max Affordable Payment를 결정해서 확인한 후에 다음 스텝으로 진행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비단 모기지 페이먼트 뿐만 아니라 내

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다른 페이먼트를 또한 이 참에 한번 다 정리해서 나만의 가계부를 만들어 보자.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문서로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요약하는 지혜는 곧 우리 스스로에게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부담이 느껴진다면 이전 과감히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든지 아니면 다운페이먼트를 최대한 늘려서 용자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은행 용자심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페이먼트와 그에 따른 예산 하에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주택비용 계산을 통한 나만의 눈높이를 조정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응원드린다.

☎문의: 703-868-7147

주택매매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들

집을 팔고 살 때 셀러의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의 보통 7~8%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바이어는 집값 이외에 여러 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용자은행에서는 다운페이와 함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 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요즘같이 용자조건이 까다로울 때 주택을 사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용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구입할 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4%대의 낮은 이자율 덕분에 구매를 망설이는 중이라면 지금이 주택구매 적기로 보고 있다. 에스 크로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 중 누구에게 어떤 비용이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가격 이외에도 세금, 보험, 에스 크로 비용, 인스펙션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데, 지역이나 셀러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지불하는 에스 크로 비용이 있다. 매매할 때 에스 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이어에게 특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택점검인 인스펙션을 하는 것인데 굴뚝이나 지붕 등을 포함해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로 바이어는 카운티에 등기할 때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일 년 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도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 보험을 바이어를 위하여 사는데 바이어도 주택용자를 할 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한편 셀러는 터마이트 검사비와 해충으로 인해 주택이 손상됐다면 수리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시 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주택에 생각지 못했던 담보가 걸려있는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 오너십 등의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를 바이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 하고, 콘도나 타운 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트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밀린 연체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홈 워런티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홈 워런티 플랜을 통해 에스 크로 기간 인스펙션을 통하여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이나 혹은 플러밍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 년 동안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물론 에스 크로 비용의 반은 셀러의 몫이다.

미셸 원 BEE부동산 부사장

부동산 리스 종류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 현금의 흐름은 투자 부동산에 계약된 리스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테넌트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가 건물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리스의 종류와 이에 따라 건물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계약은 크게 그로스 리스(Gross Lease)와 넷 리스(Net Lease)로 나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면 테넌트에게 임대료를 받고, 건물주는 부동산 세금과 부동산 화재 보험, 그리고 공용 공간 혹은 외부 조경 및 주차장 관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지불하는 위의 비용들을 렌트비 안에 녹여 넣을 수 있거나, 혹은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스 리스는 건물 관련 비용을 렌트비 안에 넣어서, 테넌트는 리스 계약상의 렌트비만 지불합니다. 이 경우 장점은 테넌트와 건물주 모두 계약 기간 계약된 렌트비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반면, 넷 리스는 건물 관련 비용을 계약된 기본 렌트비와 별개로 나눠서 따로 받는 형태입니다. 넷 리스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재산세만 부담하는 Net Lease(N), 두 번째는 재산세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Net-Net Lease(NN), 세 번째는 재산세, 보험료, 건물 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Net-Net-Net Lease(NNN), 즉 트리플 넷 리스입니다.

이렇게 넷 리스로 기본 임대료와 비용(추가

임대료)을 나누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매매 시 인산되는 비용들을 테넌트에게 전가해 투자자는 예상한 수익률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 리스 형태는 쇼핑센터, 리테일 건물, 그리고 창고 건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스타벅스, 맥도널드 등 싱글 테넌트 프랜차이즈 건물에서부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그리고 크기는 아마존 물류창고 등이 넷 리스 형태의 임대계약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레딧이 좋은 테넌트가 들어가 있으면 테넌트 회사가 부도가 날 확률이 낮고, 장기간 임대계약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매력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넷 리스 투자 경우 특히 리스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리스 계약서에는 테넌트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거나, 건물주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히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변호사를 고용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조항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리스 계약의 세부사항에 달려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리스의 종류, 비용 부담 조항, 그리고 시장 동향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브랜트 구-CBRE KOREA DESK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형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p>SOLD</p> <p>Columbia \$650,000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0.6에이커 지하출입구 별도</p>	<p>SOLD</p> <p>Clarksville \$470,000 타운홈, 방2, 화2, 1,500sqft</p>	<p>COMING SOON</p> <p>Millersville \$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p>	<p>SOLD</p> <p>Laurel \$547,000 2023 New Home, 방3, 화2.5, 차고2</p>	<p>SOLD</p> <p>Hanover \$535,000 타운홈, 2016 건축, 즉시 입주 가능 방4, 화3.5, 차고2, 100번근처</p>
<p>SOLD</p> <p>Gaithersburg. \$525,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UNDER CONTRACT</p> <p>Hanover \$490,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1</p>	<p>UNDER CONTRACT</p> <p>Odenton \$489,000 싱글홈,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p>	<p>UNDER CONTRACT</p> <p>Frederick \$386,000 타운홈, 방3, 화3</p>	<p>COMING SOON</p> <p>Cockeysville 싱글홈, 방4, 화3, 내부수리중</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Elkridge 월 \$2,800 타운홈 방4, 화장실3, 차고1</p>	<p>RENTED</p> <p>Baltimore 월 \$2,400 타운홈 방4, 화장실4</p>	<p>RENTED</p> <p>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RENTED</p> <p>Glen Burnie 월 \$1,850 콘도 방3, 화2, Top Floor</p>	<p>COMING SOON</p> <p>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COMING SOON</p> <p>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FEB. 29TH - MAR. 7TH, 2024



OUR BBQ PICK!



**Frozen
Pork Single
Rib Belly**

냉동 삼겹살

FAMILY PACK

\$3.33
LB



3겹살 데이
Pork Belly Day!

3인 3인

KÜHAUS

**Retro 2-Slice
Toaster**

레트로 토스터기

IVORY/MINT

~~REG. \$24.99~~

\$14.99
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정후, 야구 하지마” 그게 저였죠, 바람의 아들 ‘머쓱한 신바람’

(이종범)

“차범근 선배님도 차두리가 처음 축구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하셨을 걸요.”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객원 코치로 일하고 있는 이종범(53)은 어린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하마터면 아버지의 반대로 야구를 못 할 뻔했던 아들의 이름은 이정후(25). 지난해 12월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1300만 달러(약 1505억원)에 계약한 한국 최고의 타자다. ‘바람의 아들’로 불렸던 아버지 때문에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어느덧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정후 아버지’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이종범 코치를 지난 2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만났다. 텍사스 구단 마이너리그 캠프에서 코치 연수를 받는 이 코치는 “야구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않나. 요즘은 야구선수로 성공하는 게 더 어려워졌고, 심지어 정후는 유명한 아버지 탓에 압박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렇게 잘 된 걸 보니 내가 선견지명이 정말 없었나 보다”라며 웃었다.

아들은 딱일부터 낱달랐다. 이 코치는 “정후는 두 살 때부터 야구 배트를 장난감으로 삼았다.

미국서 코치 연수받는 이종범 “차범근도 차두리 축구 반대했을 것” ‘어린 이정후’ 떠올리며 너털웃음

어렸을 때 탁자 밑으로 슬라이딩을 하며 놀던 기억도 난다”고 했다.

이 코치는 아들 이정후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캠프지가 있는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머물고 있다. 텍사스 캠프가 있는 서프라이즈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는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저녁 때는 아들과 함께 지낸다. 오전 6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고된 일정이지만, 마음은 무척 편하다고 했다. 이 코치는 일부러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다른 구단을 택했다고 털어놨다. 이 코치는 “아들 정후가 뛰는 팀에서 코치 연수를 받으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보라스 코퍼레이션에 ‘샌프란시스코만 빼면 어느 팀이든 좋다’고 이력서를 건넸다. 다행히 텍사스에서 기회를 얻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도 이 코치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선수 이정후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코치에게는 이정후 외에도 올해 빅리그 데뷔를 앞둔 가족이 한 명 더 있다. 사위 고우석(25·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다. 이정후의 동생 가현씨와 결혼한 고우석은 지난해 11월 아들을 얻었다. 아직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코치

는 “벌써 외손자가 야구를 잘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좋은 DNA가 많이 보인다”며 자랑했다. 이왕 ‘바람의 가문’이 사위까지 확장된 이상, 손자까지 3대째 ‘야구 명문가’를 이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아들과 사위가 동시에 MLB에서 뛰는 장면을 지켜보는 건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다. 이 코치 부부는 처음으로 그 순간을 누릴 기회를 잡았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음 달 29일 샌디에이고의 홈구장 펠트파크에서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불펜 투수인 고우석의 등판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정후는 이변이 없는 한 타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밥 밸런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일찌감치 “개막전 1번 타자는 이정후”라고 예고했다. 이 코치 부부는 관중석에 앉아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볼 생각이다. 이 코치는 “정후가 MLB에서 첫 안타를 치는 장면을 직접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찰 것 같다. 심지어 사위 우석씨가 그날 등판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시범경기 때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정규시즌 경기는 느낌 자체가 다를 거다. 벌써 기대가 된다”고 했다.

이 코치는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 팬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홈 개막전도 손꼽아 기다린다. 4월 6일이 ‘디데이’인데 이날 맞불을 상대가 또 샌디에이고다. 이 코치는 “정후의 입단식 날 오라클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텍사스 레인저스 캠프에서 지도자 연수 중인 이종범 코치. 올 시즌 아들 이정후와 사위 고우석이 동시에 MLB에서 뛰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 배영은 기자

에도시대 분노 푸는 청춘들의 성장기... 현대 일본에 던지는 풍자

일본 사회와 거장으로 꼽히는 사카모토 준지(65) 감독이 19세기 에도 시대 풍발에서 피어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영화에 담았다.

지난 21일 개봉한 일본 영화 ‘오키쿠와 세계’는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의 외동딸 오키쿠(쿠로키 하루)와 인분(人糞)을 사고파는 분노업자 야스케(이케마츠 소스케), 추지(칸 이치로)의 성장영화다. 쇠국을 고수했던 일본이 서구 열강의 압박으로 문호를 열면서 ‘세계(世界)’란 개념이 처음 생겨난 에도 말기가 배경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공포감마저 싹튼 혼란의 시대들, 요즘 N포 세대를 빼닮은 세 청년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에 담아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을 다뤘던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KT’(2002), 태국의 아동 장기·성매매 현실을 고발한 ‘어둠의 아이들’(2008) 등 묵직한 사회파 영화를 해온 사카모



영화는 에도 시대 인분을 사다 거름으로 파는 분노업자 청년 두 명이 주인공이다. [사진 옛나인필름]

토 감독이 초저예산 독립 제작 방식으로 만든 30번째 장편이다.

하필 ‘똥’에 꽂힌 이유는 뭤까. 26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 영화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카모토 감독은 “매너리즘에 빠진 일본 영화계에 분노 폭탄을 던지고 싶었다”고 답했다.

-왜 에도 시대를 택했나.

“귀족·무사들은 집에 지구본이 있을 만큼 ‘세계’란 의식이 있었지만, 서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가난하게 지냈다. 영화처럼 대문도 안 잠고 살며 자연 재해에 상부 상조하는 공동체적 삶이었다. 분노도 재활용할 만큼 물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썼다. 낭비가 많은 요즘 느낄 점이 많았다.”

-똥에 대한 시각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흑백 영화를 택했다.

“아니다. 예전부터 흑백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저예산 느낌이 난다는 이유로 투자가 안 됐다. 아예 독립영화 형태로 간섭 없이 만들며 도전하고 싶었다. 총 12회차 촬영으로 장편을 완성했다.”

-군데군데 컬러 장면도 나온다.

“영화를 한 첩터씩 단편처럼 만들었고 각각의 결말부를 두드러지게 하려고 컬러를 넣었다. 또 이런 순환형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와도 연결되는 이야기란 걸 관객이 알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영화는 일본의 30년 차 미술감독 겸 프로듀서 하라다 미츠오가 기획한 ‘좋은 날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100년 후 지구에 남기고 싶은 ‘좋은 날’을 영화로 전하는 프로젝트다. 흑백 영상의 시대극이지만, 현대적 감각이 담겼다. 종이부터 똥까지 모든 자원을 재활용한 에도 시대 ‘순환 경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식 문화가 융성했던 시대상을 귀족이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누리는 똥으로 풍자한 시선도 유쾌하다.

영화 제작에도 ‘친환경·순환경제’를 적용했다. 하라다 프로듀서가 의상·미술감독까지 맡아 오래된 것을 재활용했다. 극 중 기모노는 100년 전 다이쇼 시대 입었던 기모노 옷감을 풀어 엮사 이를 방식으로 제작했다. 염색 원료도 친환경 식물성 재료를 썼다.

일본에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치고 지난해 키네마준보 ‘일본 영화 베스트 10’ 1위, 제78회 마이니치영화 콩쿠르 대상 등을 수상했다.

1990년대부터 서울독립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등 한국을 찾았던 사카모토 감독은 “‘오키쿠와 세계’는 워낙 작은 영화라 일본 개봉도 어려웠는데 한국에서 개봉하는 게 인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Penny: Chances are it's going to rain tomorrow.
페니: 아마도 내일 비가 올 거래.
Erin: Really? I didn't know that.
에린: 정말? 난 몰랐는데.
Penny: Don't you keep track of the weather?
페니: 날씨 잘 안보나?
Erin: Not really. I keep an umbrella in my car.
에린: 별로. 난 차 안에 우산을 두고 다니거든.
Penny: I always like to know what the weather is going to be like.

페니: 난 언제나 날씨가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은데.
Erin: Why on earth is that important?
에린: 그게 왜 그리 중요한데?
Penny: I like to be prepared.
페니: 준비하고 싶어서.
Erin: I like to be surprised. I like walking in the rain.
에린: 난 놀라는 것도 좋아. 비 속을 걷는 것도 좋고.
Penny: Why do you suppose we are such good friends? We are so different.

why on earth? 대체 왜 그런 일이 있죠?

(Penny and Erin are having coffee~)
(페니와 에린이 커피를 마시며~)

페니: 우리가 왜 그리 친한 친구일까? 이리도 다른데.
Erin: Maybe it's because we have known each other our whole lives.
에린: 어쩔 평생 알고 지내서 그런 거겠지.
기억할만한 표현
▶ chances are: ~할 확률이 크다/아마도 ~ 할 것이다
"Chances are his marriage won't last very long."
(아마도 그의 결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 keep track of (someone or something):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When you are not an organized person keeping track of things can be difficult."
(정리 정돈이 안된 사람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자체가 힘든 법이죠.)
▶ why do you suppose...?: 왜 ~ 걸까요?
"Why do you suppose English is so difficult to learn?"
(영어 배우기가 왜 그리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열쇠

(1)노랫말. 이 ~는 마치 한 편의 시 같다 (3)부정하게 생긴 돈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깨끗한 돈처럼 보이도록 꾸밈 (5)날지만 새가 아니죠. 동굴 등지에 살며, 밤에 활동하죠 (6)고기 튀김에 달고 새콤하게 끓인 녹말 채소 소스를 끼얹은 중국요리 (7)목에 두르죠 (8)좋은 일이 있을 조짐 (9)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서 가스가 꼬여 하고 복받쳐 나옴 (10)혼인할 자리 (11)아직 코뚜레를 껴지 않고 목에 고삐를 맨 송아지 (13)간과 쓸개. 속마음. ~이 서늘하다 (14)생김새나 체질, 성질 따위가 외가 쪽을 닮음 (15)오염되고 더러워져 버리는 물 (17)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에게 바침 (18)목의 뒷등이 되는 부분 (19)정답게 주고받는 이야기 (20)지질시대의 공룡을 비롯하여 악어, 도마뱀, 뱀류 등이 속해 있는 동물군 (21)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 곰팡이 낀 새가 진동하는 그 방은 ~나 사는 곳이지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니었다 (22)국가에서 세움. 설악산 ~ 공원 (23)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숙성시킨 저장식품 (24)닭의 알

세로열쇠

(2)달콤한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살살 달래는 일. □□말□ (3)돼지고기 (4)딱따구릿과에 속한 새. 단단한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내어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5)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것 (8)가는 길의 근처. 내 고향은 남도 가는 ~에 있다 (9)삼중창 또는 삼중주. 혼자 하면 솔로, 둘이 하면 듀엣, 셋이 하면 ~ (10)혼인에 대하여 오가는 말 (11)독경이나 영불을 할 때에 두드리죠 (12)피곤하시면 가슴을 펴고 팔을 쭉 뻗어 보세요 (13)습기가 찬 소금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짜고 쓴 물. 두부를 만들 때 쓰죠 (14)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먹는 일 (16)헤어진 옷과 부서진 것. 조라한 차림새. 김삿갓은 오랜 방랑생활 끝에 ~의 조라한 형색이었다. □□□□ (17)진심으로 하는 말 (18)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획.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획 (19)차를 타고 내리는 곳. 갈 봄 여름 없이/가을이 옵니다/다음 손님을 위해서 조금씩/겨울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은 봄입니다(차창통) (21)빛나무의 열매

스도쿠

			3	7	2		4	
				4	6		3	1
3		6		9	5		2	8
			2			4	9	3
		1	4		9	8	5	7
		4			8			
7		5				6		4
	9					2		5
2		8	5		4			9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7	8	9	1	2	3	4	5
5	1	2	7	8	9	3	6	4
4	8	9	3	2	6	5	1	7
2	9	1	8	5	7	4	3	6
7	5	8	6	3	4	1	2	9
3	6	4	1	9	2	7	5	8
8	2	7	5	6	1	9	4	3
1	3	6	9	4	8	2	7	5
9	4	5	2	7	3	6	8	1

① 워싱턴 중양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카드 유효 일자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바보**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2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 풀/파트타임 가능
- ▶ 영어 가능하신 분
- ▶ 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환영
-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연: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탐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매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종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co.kr
josephleejtbc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가능
영어/한국어가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메디칼

어시스턴트와 리셉셔니스트 파트타임,
풀타임을 구합니다. 703-505-0204
mmaturimed@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사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 confidential.hr@gmail.com
전화문의 :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 410-480-5234 / 지역 : 엘리콧시티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풀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r@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 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휴선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종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골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 이후,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술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매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Cafe June 에서 풀/파트타임 샌드위치
싸실분, 유무경험자, 엘리콧시티
443-310-9247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안 bbq
서버, 헤드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치레스 구함
703-333-3400

MD 포토맥 지역 뉴일식당
스시맨, 서버, 캐쉬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첼트리 Cafe Moment
금/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 PG 카운티에 위치
-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중앙일보**

캐시어구함. 볼티모어 지역. 높은페이 델리 443-621-4951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나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 (폴, 파티임 가능)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한.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폴·파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 폴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원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경험자 우대. 속식하실분. 410-961-301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분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레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틀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방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 하실분 파타임 남여 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분 을 모집한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우드브릿지타운홈 \$2,500
방3, 화장2,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3.5. ▶703-244-3453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잇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 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랑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 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모, 비흡연자 703-400-4520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 1, 취사세탁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철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1, 화장실1 703-887-5173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모,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룸 메이트 구함 애난데일 (교통편리) 잠만 자실분(남자), 인터넷 및 가구 완비 703-560-6424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703-678-7833

NOVA, GMU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이노바 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 전체 (입구 별도) 방2, 욕실2, 거실, 취사 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 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홈 2층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인터넷 완비, 한아름 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 출입문 별도, 간단취사, 금연자 571-243-6295

노스포드막,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2+Full Bath 571-830-405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커머셜 코도 800sq 렌트합니다.
571-237-3411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콘도 \$200,000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풀데지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250,000
방2, 화장실 1, 리모델한 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703-477-3114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홈 \$399,900
2019년 새단지 새집. 1 Car Garage,
End Unit. 방3, 화장실 3½, 탁트린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1, 화장실 1. 962s.f. Many Upgrades,
New Appliances, New HV/AC.
Tyson's Corner 가 까운.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부동산/상업용 매매〉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집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엘레이션 가능한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애난데일 마트만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లే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더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춘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아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남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탁,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8,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주키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 S 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 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 3스타 혼마 세트 2여행용 가방 1카트
가격조절가능 문자요망
240-500-0035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쥘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청소. 응급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워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페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민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전기 공사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용자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핫딜의 톡큰 세일혜택! 이번달에도 받아주세요~
2월의 핫딜세일
 H O T D E A L S U P E R S A L E



aerosilver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일월 전자파 ZERO, 효율적인 분리난방, 7중 안전장치
 3세대 카본(탄소)열선으로 5분 안에 전체를 따뜻하게!
ILWOUL 에어로실버 탄소매트

Single (71x35.4") \$149 Double (71x55.1") \$179



ARTISAN BAMBOO SALT
 도해 용융죽염

Kpurity
 Purple
 Bamboo Salt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신제품 런칭기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건강에 효과
 무형문화유산 한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도해 용융 자죽염 분말 & 고체

45g \$19.46 240g \$89.96 1kg \$284.96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조리용 온도계 무료 증정
 Meat Thermometer

조리용 온도계 무료 증정! 연기 & 냄새 잡는 스마트그릴
 고기/생선 조리시의 연기와 냄새를 팬으로 흡입
ANPANG WIDE 전기 무연 그릴

와이드그릴 세로11.7inch x 가로19.3inch ~~\$269~~ \$149



덕화명란

핫딜 입점기념
 고급 에코백 증정

무료
배송
Free Shipping

JB튜브 2개+그때그대로 2개+백명란 2개+숙성고 2개
 400년 한반도 명란의 역사를 이어가는 덕화명란
명장의 레시피 덕화명란 실속형 패키지

덕화명란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실속형 패키지 \$103.92



무료
배송
Free Shipping

By Make Up Artist *지혜민*

타고난 결을 빛내는 스킨누더쿠션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모이스처 핏 텍스처, 클리어 커버링, 내추럴 글로우 & 래스팅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리필 포함 (7가지 쉐이드) 미백, 주름개선 효과 \$3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오랜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결정체, **광동우황청심원**
 동의보감에도 수록된 천년 전통의 우황청심원
광동 우황청심원 현탁액 or 환

10환(세트) \$89.99 10병(세트) \$79.99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홀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하숙·렌트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 무경험자 가능
 San Jose 지역, 가 55만
 (714)562-5714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요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Casino All Auto Program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가능한
 간편한 프로그램
 고정 고수익
 (702)773-2249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Line of credit 기계장비론
 간단하고 빠른 용자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SBA 7(a) 용자 기계장비 담보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10년 상환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기타 지역 매매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리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Up to 40% 할인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Partial & Denture
 풀타임, 초보자 환영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산삼음욕탕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부에나파크 천종산삼원
명품 산삼 최저가 세일
특별세일!
 \$500 두 박스 구입시
 \$300 한 박스 공짜!!!
 \$200 (선착순 Only)
 \$100

최상급 명품 생산삼 세일(선착순) \$2500 → \$1500

상담 문의 **213 382 9191 | 562 400 0072** 7342 Orangethorpe Ave. #A-102 Buena Park, CA 90621
천종산삼원 정성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 편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열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쿤 \$379 | 트윈 \$229 | 쿤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쿤 \$419 | 트윈 \$299 | 쿤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 \$79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특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Contract

특점 최근 업그레이드한 예쁜 콘도

Annandale \$250,000

콘도, 방2, 화장실1



특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SOLD

특점 2019년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Fredericksburg \$395,900

새단지, 방3, 화장실3½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